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송미령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김광선 | 연구위원 | 자료 분석

심재현 | 연구위원 | 조사 설계, 자료 분석

김용욱 | 정책전문연구위원 | 통계 분석, 사례 조사

나현수 | 연구위원 | 사례 조사, 자료 수집

연구보고 E20-2021-8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1.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근무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 감소에 따른 우울감이 증가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아 감염 위험이 낮으며, 우수한 경관·자연 자원을 보유하여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 이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증가한 비대면 업무 및 여가 수요를 흡수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회 여건 변화, 잠재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 의향 조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근무, 워케이션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 이후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업무 방식 및 “코로나 블루”에 대한 현황 자료 및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유럽의 스마트워크 마을, 일본의 워케이션 등 외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총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차원의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을 조사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이용 의향을 조사하였다. 농촌에서 추진 중인 원격근무·워케이션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자·이용자·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입지,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사업화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연구 내용

- 연구는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제시하고 도농 상생의 관점에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지역 혁신을 창출하는 제4의 융합 공간으로서 일과 주거의 결합, 주거와 공동체의 결합, 일과 공동체의 결합을 넘어서는, 주거·일·공동체와 여가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개념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산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들이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5G 통신망 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의료 등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제4장에서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잠재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새로운 스마트워크 유형을 원하고 있으며, 입지 장소로는 쾌적한 자연 환경·경관을 보유한 한적한 장소를 선호하였다. 다만 기업은 일부 세부 유형에서 생활·업무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선호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위케이션형과 원격근무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 제언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 스마트워크 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기업의 위성사무소, 지사 등을 농촌에 조성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하여 5G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부-지자체-기업·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 이용자 확보 및 기업의 부담 완화 등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운영 시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을 참여시켜 사업 추진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6
3. 연구 방법 7

제2장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 스마트워킹의 의의

1. 스마트워킹의 의의 11
2. 농촌에서의 행복 추구하고 스마트워킹을 통한 도농 상생 20
3. 시사점 26

제3장 농촌 스마트워킹 복합공간 관련 국내외 정책과 사례

1. 국외 사례 29
2. 국내 사례 46
3. 시사점 60

제4장 농촌 스마트워킹 복합공간 수요

1. 농촌 스마트워킹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 63
2. FGI를 통한 지자체 실무자 의견 수렴 78
3. 청년·창업가·예술가 등 잠재 수요자 의견 수렴 80
4. 시사점 82

제5장 농촌 스마트워킹 복합공간 조성 방안

1. 농촌 스마트워킹 복합공간의 기본 구상 85
2. 농촌 스마트워킹 복합공간 조성 추진체계 및 사업화 구상 94
3. 농촌 스마트워킹 복합공간 운영·활성화 방안 102

부록

1. 스마트워크 공간으로서의 농촌 업무공간 수요조사 -기업체- 107
2. 스마트워크 공간으로서의 농촌 업무공간 수요조사 -근로자- 115
3. 마을 이장 및 주민 대상 스마트워크 마을에 대한 수요 조사 126
4. 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 130

참고문헌 133

제2장

〈표 2-1〉 국내 스마트워크 정의 12
 〈표 2-2〉 초기 스마트워크 유형 13
 〈표 2-3〉 최근 스마트워크 유형 13
 〈표 2-4〉 Oldenburg의 제3의 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 특성 비교 17
 〈표 2-5〉 도시민 중 꿈꾸는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소망 장소에 따른 버킷리스트 ... 21

제3장

〈표 3-1〉 원격근무 보급 확대 방향 및 사례 30
 〈표 3-2〉 도쿠시마 위성사무실 프로젝트 추진 연혁 32
 〈표 3-3〉 도쿠시마 위성사무실 관련 지원제도 34
 〈표 3-4〉 기타 일본의 위케이션 추진 현황 38
 〈표 3-5〉 농촌의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 40
 〈표 3-6〉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사례(Co-working spaces with childcare) 42
 〈표 3-7〉 유럽 공공부문의 ‘새로운 근무방식’ 사례 43
 〈표 3-8〉 미국 주 정부의 원격근무 도입 사례 44
 〈표 3-9〉 캘리포니아주(실리콘밸리 지역)와 텍사스주(오스틴 지역)의 세제 비교 45
 〈표 3-10〉 커뮤니티 호텔 H 및 연계시설 개요 57

제4장

〈표 4-1〉 기업 대상 설문 개요 63
 〈표 4-2〉 기업체 대상 설문 응답 표본 구성 64
 〈표 4-3〉 농촌 관련성에 따른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관심·이용 의사 차이 66
 〈표 4-4〉 근로자 대상 설문 개요 68
 〈표 4-5〉 근로자 대상 설문 응답 표본 구성 69

제5장

〈표 5-1〉 위케이션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의 주요 기능	92
〈표 5-2〉 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의 주요 기능	93
〈표 5-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94
〈표 5-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	95
〈표 5-5〉 위케이션형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및 관리비 산출 내역(안)	97
〈표 5-6〉 원격근무형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및 관리비 산출 내역(안)	98

제1장

〈그림 1-1〉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촌에 대한 도시민 요구 변화	3
〈그림 1-2〉 연구 흐름도	9

제2장

〈그림 2-1〉 지역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상호작용 개념도	18
〈그림 2-2〉 Morisson(2019)이 제시한 융합적 공간 개념	19

제3장

〈그림 3-1〉 가미야마정 그린밸리 프로젝트의 주요 시설 및 활동	35
〈그림 3-2〉 후지미정 숲의 오피스 내부공간 및 네트워크 행사	36
〈그림 3-3〉 오노미치세어의 공간 구성 및 전경	37
〈그림 3-4〉 와카야마현과 홋카이도의 위케이션 프로그램 홍보 이미지	38
〈그림 3-5〉 사업 대상지 전경 및 관련 사업 홍보 이미지	47
〈그림 3-6〉 기획전 홍보 이미지	48
〈그림 3-7〉 봉산마을 전경과 업무·숙박공간 이미지	49
〈그림 3-8〉 농어촌 원격근무의 업무 여건 및 효율성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	50
〈그림 3-9〉 농어촌 원격근무의 지출 규모 및 매출액 변화	50
〈그림 3-10〉 농어촌 원격근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전후 측정 결과	51
〈그림 3-11〉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전경	56
〈그림 3-12〉 커뮤니티 호텔 H 및 연계시설 전경	57
〈그림 3-13〉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및 곡성아트빌리지 시그나기 시설 전경	59

제4장

〈그림 4-1〉 비대면 업무처리 비율의 변화	65
〈그림 4-2〉 새로운 스마트워크 업무방식의 도입 필요성	65
〈그림 4-3〉 관심·이용 의사가 있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유형 비율	66
〈그림 4-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요구되는 입지 특성	67
〈그림 4-5〉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요구되는 업무공간 특성	67
〈그림 4-6〉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요구되는 숙박·주거 공간 특성	68
〈그림 4-7〉 스마트워크 유형별 시행 여부 및 경험 유무	71
〈그림 4-8〉 확대를 원하는 스마트워크 유형	71
〈그림 4-9〉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갖추어야 할 입지 특성	72
〈그림 4-10〉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갖추어야 할 공간적 특성	73
〈그림 4-11〉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업무·주거 외 필요한 공간	74
〈그림 4-12〉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갖추어야 할 입지 조건	74
〈그림 4-1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이용 시 희망하는 회사의 지원 비율 및 1인당 1일 지불 가능 최대 금액	75
〈그림 4-1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도입 찬반 여부	76
〈그림 4-15〉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도입에서 기대하는 사항	77
〈그림 4-16〉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도입 반대 이유	78

제5장

〈그림 5-1〉 관계인구의 개념과 의미	86
〈그림 5-2〉 이용자-공급자 측면을 고려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향	87
〈그림 5-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사업 유형화	89
〈그림 5-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사업 유형에 따른 이용 형태 분류	89
〈그림 5-5〉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예시	90

〈그림 5-6〉	위케이션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 구성	91
〈그림 5-7〉	위케이션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주요 활동 관련 이미지	92
〈그림 5-8〉	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 구성	93
〈그림 5-9〉	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주요 활동 관련 이미지	93
〈그림 5-10〉	원격근무형(기업 위성사무소 유치 시)	100
〈그림 5-11〉	신규 조성 위케이션형	100
〈그림 5-12〉	기존시설 활용 위케이션형	101
〈그림 5-13〉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사업의 농촌 생활권계획 및 농촌계획지구 반영 예시	105

1

서론

1. 연구 배경

□ 불균형적 인구 분포로 인한 국가의 지속가능성 위기 직면

○ 대도시 인구 집중은 다양한 도시문제와 삶의 질 저하, 국가적 지속가능성 위기를 초래함. 동시에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따른 마을 공동화, 고령화 및 인적 자원 부족으로 활력 저하와 함께 장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집값 급등, 혼잡비용 증가 등의 도시집중에 따른 문제, 청년 실업과 저출산문제,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률과 노인 빈곤 등으로 국민 삶의 질 수준은 경제적 성과에 못 미치는 실정임.

* 대도시 주택매매가격지수('20년 기준 / '03년=100): 서울시 147, 6대 광역시 137¹⁾

*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통계청 2021)

* 청년(20~29세) 실업률(%): ('00년) 7.5 → ('10년) 7.7 → ('20년) 9.0(통계청 각 연도)

* 우리나라의 분야별 삶의 질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OECD 40개국 중 환경(40위), 공동체성(40위), 일과 삶의 균형(37위)²⁾

* '19년 기준, 한국 자살률 10만 명당 26.9명(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9): 연령화표준자살률

1)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 정보(<http://www.reb.or.kr/r-one>, 검색일: 2021. 8. 10.)

2) OECD Better Life Index(<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검색일: 2021. 5. 13.)

OECD 평균 11.5명의 2배 초과

-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따른 마을 공동화, 고령화 및 인적 자원 부족으로 활력 저하와 함께 장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읍·면지역 농가 경영주 중 청년 경영주: 1만 264명(전체 경영주의 1.2%)(송미령 외 2019)

* 무출생 및 10인 이하 출생 읍·면 수('15년): 706개(전체 읍·면 50%)(송미령 외 2019)

□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산과 농촌에 관한 관심 증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근무 형태의 확산·장기화 추세임.

- 비대면 근무 형태가 미래 사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혹은 농촌지역에서 활동 및 정주 수요가 증가함.

* 5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8.8%가 재택근무 실시 중³⁾(고용노동부 2020)

*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이 높다는 의견이 66.7%에 이르고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51.8%에 달함(고용노동부 2020).

- 이러한 이유로 도심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은 직원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SK텔레콤은 서울 전역과 인근 도시로 직원 일터를 분산시키는 '거점오피스'를 추진 중임.⁴⁾

* 롯데쇼핑도 직원 거주지와 가까운 거점 사무실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시작함.⁵⁾

- 주거지 외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한적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참고〉 감염병에 취약한 '3밀' 떠나는 사람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밀집·밀접·밀폐를 피할 수 없는 대도시의 매력도가 점차 낮아지고 넓은 공간과 녹지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방역에 효율적인 중규모 도시로 분산될 것이라 전망...(중략)... "적당한 인구와 공간 밀도, 보행과 자전거, 지역 공동체는 코로나 이후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겨레 2020. 10. 10.)

3) 고용노동부. 2020. 9. 24. "재택근무 업무효율과 직무만족 모두 높게 나타나."

4) 한겨레 2020. 6. 7. "'출퇴근 시간 20분 이내로'...SKT의 실험은 성공할까"

5) 중앙일보 2021. 7. 29. "'코로나 끝나도 사무실 안 돌아간다'...스마트워크센터가 뜬다."

○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한 사회관계 감소와 업무 피로도 증가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증가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우울증 치료 인구: (‘18년) 75.2만 명→(‘19년) 79.8만 명→(‘20년 상반기) 59.5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 전국 만 20세~65세 이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로 우울감 또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함(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 농촌은 도시에 비해 한적하여서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우수한 경관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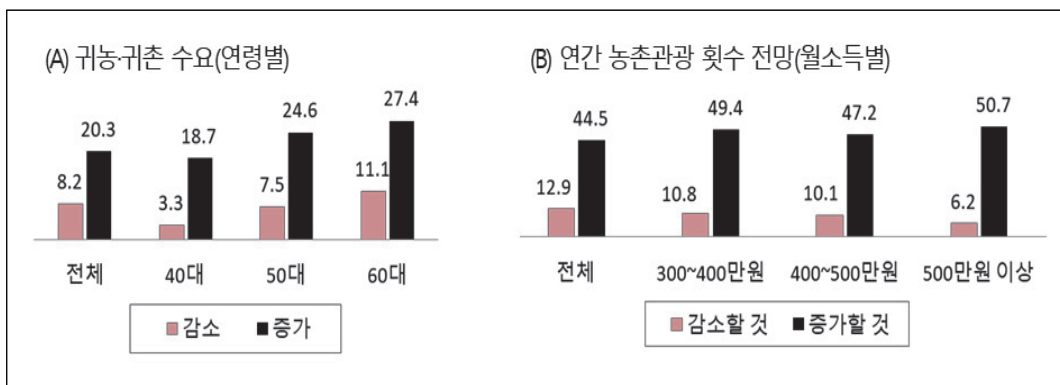
-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촉발된 건강과 자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는 농촌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 '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영향 관련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감소했다는 비율보다 높으며, 특히 50~60대 연령층으로 갈수록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이명기 외 2020)

*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늘어나라는 응답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관광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욱 높았음.

〈그림 1-1〉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촌에 대한 도시민 요구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도시민 1,011명 대상 설문 조사 자료 집계.

- 농촌에서 여가나 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10명 중 4명은 농촌관광을 가봤다고 응답함(농촌진흥청 2018).

* 국민은 농촌을 일상 탈출과 휴식의 공간(47.1%), 즐길 거리와 즐거움(17.8%), 새로운 경험(10.0%)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밀집 관광지에 대한 선호보다는 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촌과 다양한 ‘관계맺음’ 관련 수요가 증대하는 추세이며, 그중 가장 강한 ‘관계맺음’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음.

-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명 수준으로 다시 증가함(송미령 외 2021).

- 도시민에게 은퇴 혹은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은 41.4%로 2019년에 비해 6.8%p 증가함(우병준·박혜진 2020). 특히,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여건 변화로 귀농·귀촌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도시민은 63.2%로 나타나 향후 귀농·귀촌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촌은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져 있어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

□ 해외에서는 균형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원격근무 증가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유럽연합은 농촌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연결성 증대와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스마트마을 개발을 추진 중임.

- 스마트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현재 유럽농촌개발펀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post-2020 공동농업정책에서도 스마트마을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함.

* 유럽연합에서는 '16년에 Cork 2.0 Declaration for a Better Life in Rural Areas가 선언된 이후로 꾸준히 스마트마을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가 병행될 수 있는 근무제도인 워케이션(Workation)을 시행하여 코로나 시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주목받고 있음.
 - 워케이션의 본래 개념은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근무제도임. 노동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무렵 일본에 도입된 이후 큰 관심을 끌고 있음(矢野經濟研究所 2021).

-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치유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고자 농촌을 찾는 수요가 증대
 - 에어비엔비(AirBnB)가 한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워케이션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그린포스트 코리아 2020)
 - 일상과 다른 풍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일과 삶의 조화를 높일 수 있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워케이션의 장점으로 들고 있음.
 - 오두막집이나 시골집처럼 인적이 드문 숙소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되었고, 원격근무 시 살아보고 싶은 장소로는 국내의 해안가 혹은 지방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4%에 달함.

 - 경북도, 강원도, 전북도 등에서는 이미 빠르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수요도 나타나고 있음.
 - 경북도는 현재 2건에 걸쳐 기업과 농촌을 잇는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중이고, 강원도 관광재단도 워케이션 기획전 등을 추진 중임. 민간 차원에서도 워케이션 관련 스타트업이 추진 중임.

-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빠른 대안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농촌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활력 저

하, 농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대 등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대응의 하나로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워케이션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원격근무형 등과 같은 유형의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함.

2. 연구 목적 및 내용

2.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증가한 비대면 업무 및 여가 수요를 농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분석을 토대로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2. 연구 내용

- 문헌 검토 및 시사점
 -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법·제도 분석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구축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사례
 - 유럽연합의 스마트워크 마을 정책 및 관련 사례
 - 일본의 워케이션 사례 및 기업 동향
 - 국내에서 추진 중인 워케이션 사례 및 워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 기업 관리자 및 근로자의 참여 의향

-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 인지도 및 참여 의향도
- 원격근무(재택근무)의 이용 정도, 확장 계획 및 재택근무 시 기업의 필요 요건
- 위성사무소, 워케이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 도입을 위한 기업 내 선결 과제 등

○ 참여 마을, 주체의 수용 태세와 요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마을 패널 102개 마을 대상 조사
- 원격근무, 워케이션 수용성 및 참여 의향도
- 스마트마을 구축 시 고려할 주민들의 요구 사항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향 및 과제

- 워케이션 및 원격근무 수요 충족과 농촌의 일자리, 교육, 다문화, 청년 유입 등 다양한 농촌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 법·제도적 지원 사항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시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구상 등

3.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업무 및 우울감 등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유럽의 스마트마을, 일본의 워케이션 등 관련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이슈 제시

○ 기업, 근로자 및 농촌 주민의 스마트워크 마을 참여 의향 조사

- 기업의 총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참여의사를 이메일을 통해 조사하고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조사함.
- 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종사자 규모, 업종, 농촌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샘플링하고, 근로자의 경우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기업에 소속된 임금 근로자들 중에 연령, 근무지,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샘플링함.
- 마을 주민의 경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마을 패널 102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주요 설문 내용은 기업의 참여 의향 및 원격근무 또는 워케이션을 위한 선결 과제, 농촌 주민의 수용 태세 등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구현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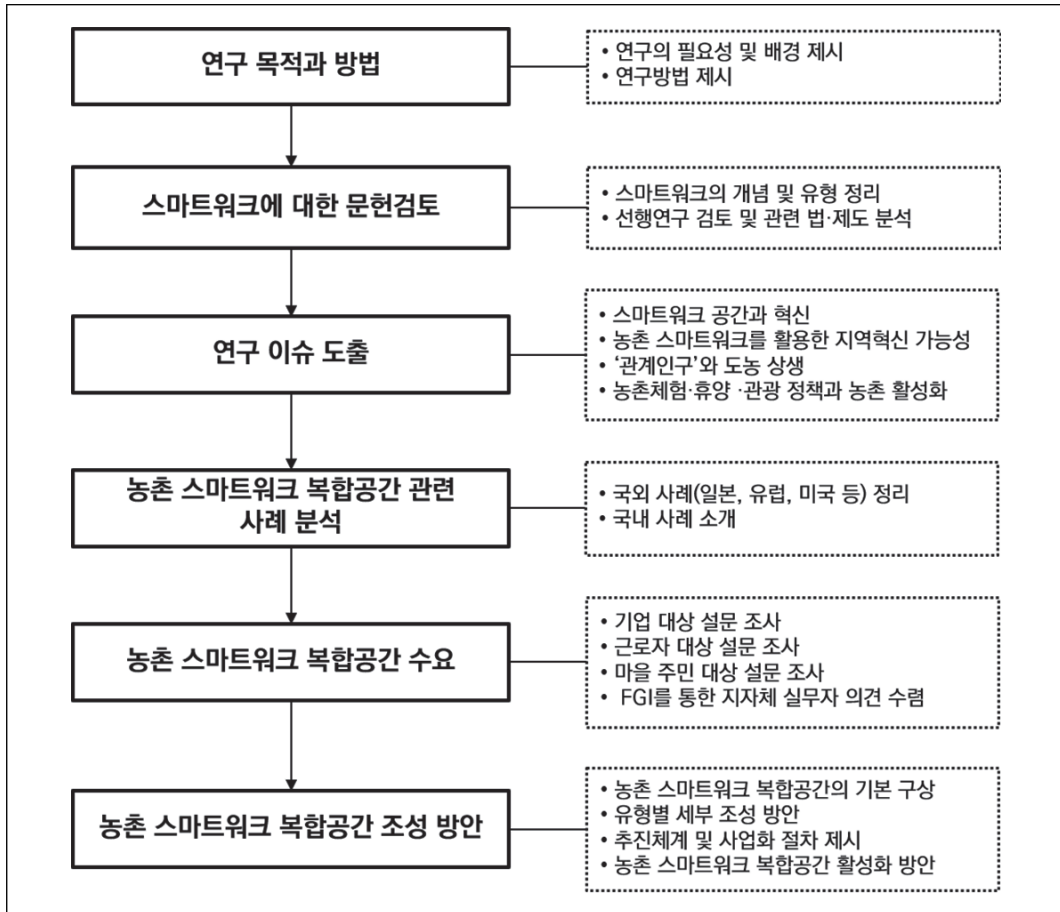
○ 농촌에서의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 사례 관련 기업 및 현장 조사 수행

- 국내에서 추진 중인 원격근무, 워케이션 참여 기업 및 마을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도출

- 도시 접근성, 농촌 자원 및 기타 인프라 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입지 설정 방안
- 참여 기업 및 기존 농촌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구현 시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구상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사항

〈그림 1-2〉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2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 스마트워킹의 의의

1. 스마트워킹의 의의

1.1. 스마트워킹의 개념

□ 스마트워킹의 등장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일상에서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업무의 디지털화는 근로자를 전통적인 사무실 공간으로부터 분리시켜 언제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함.

-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통근 시간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성 향상, 이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함(Messenger 2017).
- ‘원격근무’는 미국의 로켓과학자인 잭 닐스(Jack Nilles)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써 1973년 ‘Telecommuting’이란 용어를 처음 제시하였음(박선미·강민욱·강민정 2020).
-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식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기존 오피스 중심의

근무 형태에서 시·공간적 자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업무방식인 ‘스마트워크’가 주목 받게 됨(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스마트워크 정의 및 유형

○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거지 및 사무실, 그 외 다양한 대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함(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스마트워크’ 개념을 도입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방식의 일종으로 정의하였음.

〈표 2-1〉 국내 스마트워크 정의

기관	정의
행정안전부(2010년)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재택근무, 모바일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년)	지정된 업무공간인 사무실의 개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
고용노동부(2011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또는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

자료: 박선미·강민욱·강민정(2020).

○ 일반적으로 초기의 스마트워크는 집에서 업무를 보는 형태의 재택근무, 외부에서 휴대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바일오피스 형태, 집 또는 회사 가까이 있는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의 세 가지 개념을 포괄하였음(서기만·장재현 2011).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스마트워크의 유형을 근무 장소에 따라서 ① 현장/이동근무, ② 재택근무, ③ 스마트워크센터근무, ④ 직장근무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였음.

〈표 2-2〉 초기 스마트워크 유형

구분	유형	근무방식	도입효과	
장소	현장/이동	이동 또는 현장에서, 모바일 단말을 활용하여,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업무 신속 처리 • 메일, 결재처리 단축 	
	고정	재택근무 (홈오피스)	자택에서, 업무공간 및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재택근무 및 1인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노인 취업확대 • 기업의 비용절감
		센터근무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사무실 환경과 유사하거나 보다 창의적인 환경에서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거리 감소 • 창의적 사고 증진
		직장근무	직장에서, 현재보다 더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환경을 구축하여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생산성 증진 • 소통/커뮤니케이션강화
원격 협업		자택/이동/센터/직장 등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활용하여, 상호 원격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감소 • 집단지성, 신속의사결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2011).

- 현재 스마트워크의 개념은 초기보다 확장되어 근로시간 전체 혹은 일부 시간을 자택 또는 별도의 사무실, 특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까지 포괄하게 되었음(한국디지털재단 2020).
- 최근에는 모바일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및 스마트오피스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의 관점에서의 시차 출퇴근제와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스마트워크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표 2-3〉 최근 스마트워크 유형

구분	정의
모바일오피스 (현장/이동근무)	회사 밖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동형 기기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예) 모바일 전자결재 모바일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
스마트워크센터	회사의 특정 공간에 별도로 구축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회사 밖의 전문 사무공간에서 업무 수행
재택근무(홈오피스)	PC,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스마트오피스	유연좌석제, 영상 화상회의, 업무용 메신저 등과 같이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유연좌석제	개인 고정 좌석을 없애고 출근할 때마다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여 업무 수행
영상·화상회의	영상장비 및 오디오시설,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간에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
업무용 메신저	회사에서 자체 구축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조직 차원에서 이용하여 업무 관련 지시, 보고, 협업, 소통 등 수행

(계속)

구분	정의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여건에 따라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시차 출퇴근제	출퇴근 시간대에 시차를 두거나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기간 동안(예: 1개월, 분기 등)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인정받는 제도
탄력근무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기타 스마트워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가 제공하는 서버, 저장소,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 자원을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한 원격 상담·유지보수 등과 같은 형태로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등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 스마트워크의 법적 개념

○ 노동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전통적 노동방식과 차이가 있는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탐색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실시의 근거, 재택근무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의 규율, 복무관리와 보안유지, 재택근무자의 건강·사생활 및 산재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통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소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하지만 스마트워크는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011년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워크에 관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관계 및 스마트워크 도입·시

행에 필요한 노무관리상의 유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스마트워크를 정의하면서 ‘일하는 장소’의 개념을 강조하였음.
 - 스마트워크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또는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정의함.
- 스마트워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근거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스마트워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음.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됨.
 -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휴게(54조),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원칙적으로는 스마트워크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 근무 시 디지털기구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상시 통신 가능하며 사

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음.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럴 때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됨.
-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등)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규정된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1.2. 스마트워크 공간과 혁신 관련 이론

□ 코워킹 스페이스와 제4의 공간

○ 코워킹 스페이스는 2005년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뉴버그(B. Neuberg)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며, 코워킹 스페이스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몇몇 학자들이 용어를 정의함.

-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비계열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개방형 사무실 환경(Spinuzzi 2012)
- 일련의 가치를 공유하고 독립성과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식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공간(Lange 2011)

○ Moriset(2013)은 사회학자 Oldenburg가 제시한 ‘제3의 공간(Third place)’ 개념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특성을 설명함.

- Oldenburg에 따르면, 제3의 공간은 집(제1의 공간)과 일터(제2의 공간)가 아닌 카페, 바, 서점과 같은 비공식적인 만남의 장소를 의미함.
- 코워킹 스페이스의 선구자적 모델인 ‘Citizen Space’는 개방성, 협력, 접근성, 커뮤니티를 핵심 가치로 제시함.

- 코워킹 스페이스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인지적 근접성(cognitive proximity)을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관계적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임.

〈표 2-4〉 Oldenburg의 제3의 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 특성 비교

Oldenburg의 제3의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립적 공간: 사용자들이 자유롭고, 유연적으로 공간에 모이고 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 • 평등성: 사회적 장벽이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배제하는 포용적 공간. • (유머를 포함하는) 대화가 주요 활동임. • 접근성과 편의 • 정기적 고객(단골)은 장소에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신규 방문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음. • 평범함: 제3의 공간은 겉치레나 가식이 없음. • 사용자들에게 집 같은 느낌을 공간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성: 개방성과 투명성 중요.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한 상호 이익을 추구, 개방 공간 조성, 토론 촉진. • 협력: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 접근성: 물리적, 금전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 커뮤니티: 연결과 상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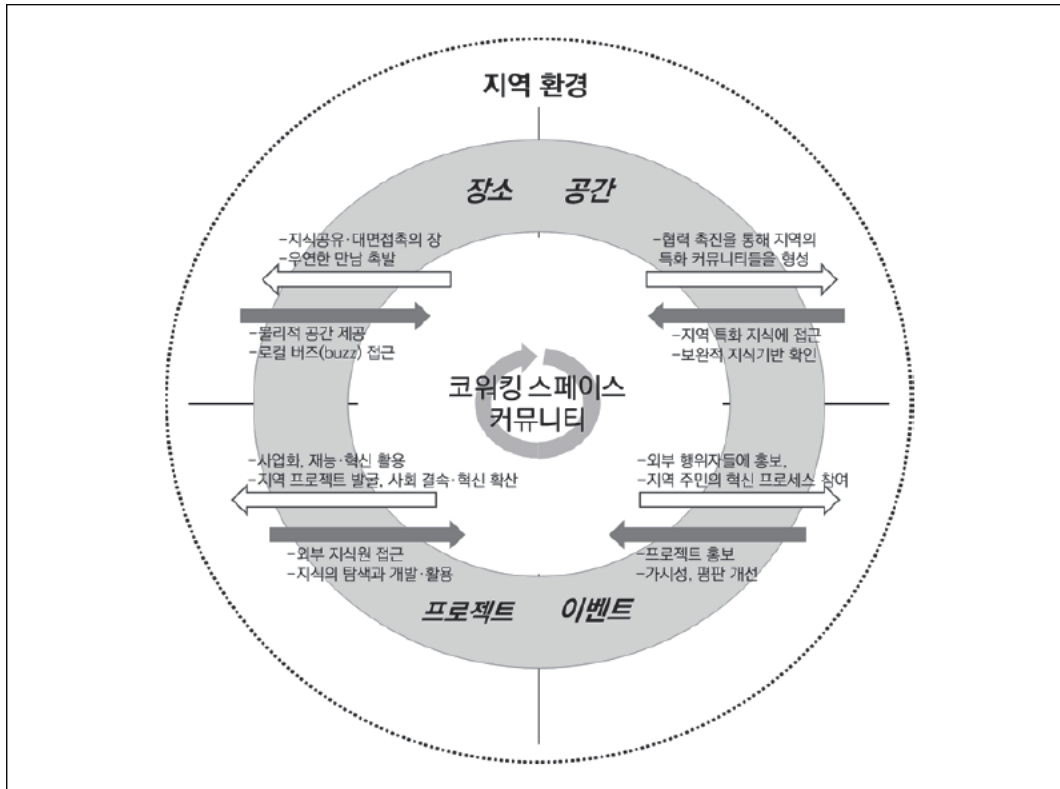
자료: Moriset(2013) 재정리.

○ Capdevila(2015)는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의 혁신 동학을 장소, 공간, 이벤트,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함.

- 장소(place): 공식, 비공식적 환경에서 개인이 만나고 교류하는 장으로 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흐름을 통해 로컬버즈⁶⁾를 촉진함.
- 공간(space): 물리적 장소에 상징적이고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보완적인 역할로써, 구성원들 간에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지적 근접성에 의한 협력적 실행과 혁신의 허브로서 기능함.
- 이벤트: 지역사회와 원거리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이디어와 지식의 순환에 기여함.
- 프로젝트: 실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일반적 형태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활동을 수행함.

6) 같은 도시나 지역, 동종 업종에 속하는 기업, 근로자, 조직 등의 구성원들이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s)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생태계(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cology)를 의미함 (Bathelt et al. 2004).

〈그림 2-1〉 지역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상호작용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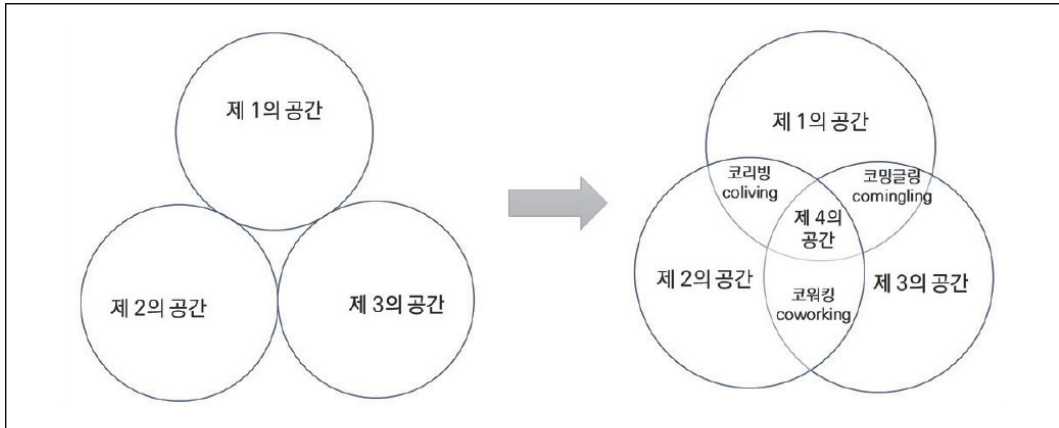
자료: Capdevila(2015); 정수희·허동숙(2020) 재인용.

○ Morisson(2019)은 집, 직장, 사교모임의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융합적 특성을 갖는 공간이 등장하고 있음을 제시함.

- 코리빙(coliving, 제1의 공간(집)과 제2의 공간(일터)의 결합): 2016년 설립된 스타트업 ‘해커하우스(Hacker House)’가 대표 사례, 10여 명의 기업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소와 작업장을 제공함.
-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제2의 공간과 제3의 공간이 결합): 일과 네트워킹을 동시에 강조함.
- 코밍글링(comingling, 제1의 공간과 제3의 공간의 결합): 거주자와 방문객이 교류하고 문화 행사,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킹 기회를 증진하는 공간임.

- 제4의 공간(제1~3 공간의 결합): 파리 소재 ‘Station F’와 ‘Stream Building’이 대표 사례임. 기업가와 지식 인력을 위한 공유주거지, 업무공간, 식당, 바, 팹랩(fab lab) 등을 제공하며 동일 공간에서 일-학습-놀이가 이루어짐.

〈그림 2-2〉 Morisson(2019)이 제시한 융합적 공간 개념



자료: Morisson(2018); 정수희·허동숙(2020) 재인용.

1.3. 농촌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혁신 가능성

□ 지역혁신을 창출하는 제4의 융합공간으로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핵심 개념

○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사교)의 터가 공존하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지역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제4의 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은 단순히 일과 주거의 결합, 주거와 공동체의 결합, 일과 공동체의 결합을 넘어 주거, 일, 공동체와 여가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개념화함.
- 일-학습-놀이가 연계될 수 있는 장소, 도시민과 주민 간의 교류와 이를 통한 협력적 도농 공동체 형성이 필요함.
- 더불어, 공동의 목표 해결을 위해 유대와 결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젝트 발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2. 농촌에서의 행복 추구하고 스마트워크를 통한 도농 상생

2.1. 국민 행복 추구의 공간, 농촌

○ 농촌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국민의 행복 추구

- 과거 농촌정책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사회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소득원 개발, 산업 및 공간 인프라의 확충, 균형발전,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음.
- 경제·사회와 기술의 발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및 기대수명의 확대,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 농촌정책의 대상은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에 한정되지 않으며, 농촌정책의 추진 목표 역시 농촌의 물리적 개발이나 주민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국가정책 중 국내정책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공, 영해 내에서 다양한 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가정·공동체 등 다양한 범위에서의 생활, 주거·경제·사회·여가·문화·의료·복지·교육·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활동과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실천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정책 목적의 실현을 위한 장(場)으로서 농촌공간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 향후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목표가 설정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국민이 인식하는 농촌은 '소중하다'

- 국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농촌에 대한 긍정적 연관어로 2010년에는 '희망'이라는 인식의 표현이 1위였지만, 2018년에는 '소중하다'라는 표현이 1위로 나타났음(송미령 외 2019).

- 이러한 결과는 농촌이 지니는 가치가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확대되고 있고, 이제는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에 ‘소중하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국민의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서 농촌

- 우리나라 국민 중 도시민은 현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꿈꾸는 버킷리스트에 ‘여행하기(36.8%)’,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11.9%)’를 높은 순위로 포함하고 있음(송미령 외 2019).
- 이러한 도시민의 버킷리스트는 활동 내용으로 보아 상당 부분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추구되고 실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에 농촌이 충분히 기여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이 재차 드러나는 조사 결과임.

〈표 2-5〉 도시민 중 꿈꾸는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소망 장소에 따른 버킷리스트

세부 항목	타 도시에서 꿈을 실현 (1,309명)		농촌에서 꿈을 실현 (289명)		전체 응답자 (2,291명)	
	빈도	%	빈도	%	빈도	%
(1)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 지역사회 참여, 여가 활동	44	1.8	52	10.0	144	3.6
(2)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199	8.0	136	26.3	481	11.9
(3) 취미 및 예술활동 (악기 배우기, 미술 등)	329	13.3	56	10.8	533	13.2
(4) 농촌에서 창업, 취업, 농사 등 경제활동	37	1.5	27	5.2	85	2.1
(5) 여행하기(국내외 여행, 맛 집 여행 등)	877	35.4	152	29.3	1,483	36.8
(6) 기부 및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262	10.6	17	3.3	154	3.8
(7) 공부(외국어 포함)/자기계발하기	256	10.3	32	6.2	403	10.0
(8) 가족 관계 돈독히 하기(효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등)	209	8.4	27	5.2	383	9.5
(9) 내 집 마련하기	262	10.6	19	3.7	367	9.1
전체	2,475	100.0	518	100.0	4,033	100.0

주: 도시민 2,29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신의 버킷리스트 최대 2개까지 선택하게 한 것을 집계한 것임.
 자료: 송미령 외(2019). ‘국민 삶의 만족도·바람(Bucket List) 및 농촌 수요 조사’ 결과.

2.2.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에 소중한 농촌, '관계인구'로 도농 상생

○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 전통적 '정주인구'(stock 개념)만이 아니라 '관계인구'(flow 개념)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 관계인구라는 용어는 시민활동가 다카하시 히로시(高橋博之)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던 경험 속에서 새롭게 개념화함.
- “인구가 줄어들어 버려 자신들만으로는 마을을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여기 모인 관계자 전부가 마을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진피해 지역 주민의 말에 도시민이 다양하게 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계인구' 개념을 착안함.
- '관계인구'는 이주한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하는 '교류인구'도 아닌, 특정 지역과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함. 도농 교류나 이주를 촉진하던 기존 인구 유치에 더해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라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함.
- 관계인구는 교류인구와 이주(귀농·귀촌)인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관계인구 창출·확대·활용은 농촌을 포함한 인구 과소화 및 소멸위기 지역의 인구·사회·경제 활성화의 새롭고 유용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
 - *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인구 유치의 방법으로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
- 관계인구는 그 지역의 담당자로서 활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낳고, 내발적 발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 이주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일본: 일본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14년 지방 소멸론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1월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지방창생 장기비전' 및 5년 단위의 제1기(2015~2019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전략'(이하 '지방창생전략')을 수립하여 연간 10조 원 규모의 지방창생 사업 추진하였음(차미숙 2020).
 - *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년)을 통해 기존의 제1기 지방창생전략을 확대하는 한편, 도농 교류나 이주를 촉진하던 기존 인구 유치에 더해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라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차미숙, 2020).
 - * 대한민국: 기존의 도농 교류와 귀농·귀촌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이들을

활용해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를 극복하고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송미령 외 2020).

○ 인구·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관계인구의 확대·활용이 중요해지고,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관계인구 활용을 정책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관계인구 확대를 바탕으로 대도시 거주 청장년층, 은퇴 연령층의 탈수도권 분산 거주 및 농산어촌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프로덕티브 에이징 (productive aging), 웰에이징(well aging)을 위한 농촌에서의 인생이모작 기회 확대
-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평생을 한곳에서 사는 place-bound tradition에서 인생 주기별로,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time-bound tradition으로 전환

○ 소득 증대와 더불어 주 5일 근무 및 수업의 정착, 근로자를 위한 각종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 관광,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농산어촌이 도시에서와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 체험, 문화, 경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시민의 교육 및 직장근무 경험은 농산어촌의 관계인구를 확장하는 데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음.

○ 관계인구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관심 증가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정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

- 국가 성장 과정에서의 일방향적 자원 흐름(농촌→도시)이나, 국가 성장 이후의 일방향적 교류(도시→농촌)에서 벗어나, 쌍방향의 협력이나 상생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이를 촉진하는 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이러한 논리는 다음의 이계(heterarchy)에 대한 공간이론을 도농 간 관계에 적용할 때 더욱 심화될 수 있음.

2.3. 이계(heterarchy)의 융복합과 도농 상생

○ 다양성(multiplicity)의 공간과 이계(heterarchy)의 공간

- 도시이론에 따르면 도시라는 공간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졌으며, 다양성이야말로 도시발전의 밑거름이었음(Hall 1998).
-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다양성의 공존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그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융복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산업·경제, 경관, 사회, 문화·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활동과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지역 내 다양성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을 넘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 새로운 시너지, 새로운 발전을 창출하는 공간을 이계의 공간(space of heterarchy)이라 할 수 있음.
- 본래 이계는 흔히 네트워크라 통칭되는 사회·경제·공간 관계를 의미함(Pyke & Sengenberger 1992). 도시경제나 공간경제 분야에서는 다양성(multiplicity)이나 이질성(heterogeneity)을 지닌 사회·경제·공간적 요소들이 기능적 위계(hierarchy)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탈정형화되고 탈구조화되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외적 환경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 관계를 의미함.
- 다양성이 공간을 구성하고 융복합을 통해 이계로서 지역의 물리적 구성, 경관, 경제, 사회, 문화, 인구 등에 변화를 촉진하는 현상은 이제는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활발히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였던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사회활동이 규정되면서 동질성과 단순성이 특징이었던 과거의 농촌과 달리, 오늘날 농촌은 다양한 인구구조, 경제·산업 기반, 사회활동과 조직, 문화현상, 혁신의 창출과 활용 등에 있어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발생하면서 다양성의 공간으로 진화하였음.

○ 농촌의 이계를 활용한 도농 교류, 도농 협력, 도농 상생

- 농촌의 다양성 기반이 크게 확대되면서 특정 농촌지역은 타 지역과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니며, 과거 식량생산과 노동력 제공의 기지로서 도시

에 일방적으로 내어주던 한 방향 관계를 지닌 공간도 더 이상 아님.

- 농촌지역 간 그리고 농촌과 도시 간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고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 왔음. 특히 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던 과거의 도농 교류와 협력과는 달리, 최근에는 농촌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 농촌성을 활용한 개인의 행복 추구, 기업경영의 탈집중적 재조직화(예: 프로젝트 조직), 국가 및 지역의 발전 동력 확보(저밀도 경제와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한 원인과 목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전략적 상생(strategic symbiosis)이 강조되고 있음.

*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전략적' 상생 필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는 가격(price)의 기제(process)와 같이, 필요와 충족이 만나 적절한 균형의 결과인 상생이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 기업의 성장,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분석·계획·실행되는 '전략적 상생'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공간적, 시간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이 무너지거나 적어도 낮아지면서 각각의 도시와 농촌이 내재하고 발전시켜온 다양성이 차별성으로 자원화되고, 차별화된 자원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촉발하는 이계로의 진화가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음.

* 도시이론의 이계는 개별 도시가 지니는 다양성의 융복합과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을 강조하지만, 이를 도시-농촌 간 전략적 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넓은 지역 내에서의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농촌 융복합을 통합 이계 형성의 가능성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농촌은 도시와 차별적 공간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에서 찾기 힘든 '비어 있음'에서 기회 발견하기(finding opportunities in relative emptiness)의 가능성이 풍부하기에 개인의 필요, 기업의 필요, 지역의 필요, 국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 이계 형성에 보다 유리함.

○ 개인, 기업, 지역, 국가 모두에 도움되는 도농 상생 필요

- 개인: 공간 고착형 라이프 스타일(place bound life style)에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모두 누리는 시간 기반형 라이프 스타일(time bound life style)로의 전환을 통한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 기회 확대 등
- 기업: 인력관리 중심의 과거 경영에서 새로운 지식관리 경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자유로워진 입지의 이점을 농촌에서 확보. 농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직

원들이 일, 생활, 여가 등 다양한 삶의 측면을 특정 공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부여함으로써 창조계층 확보를 위한 기업 문화 구축 등

- 지역: 대도시의 경우 과밀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소. 농촌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유입인구(예: 관계인구) 확보, 새로운 공간정비 추진, (기업이 완전히 이전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기업활동의 유치, 그리고 이를 통해 연계 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조직, 기술, 주거 등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농촌개발 추진 등
- 국가: 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 극복, 지역 간 및 다양한 계층 간 교류와 협력 증진, 저밀도 경제의 발전 촉진, 이계의 공간 발전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과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 등

3. 시사점

○ 농촌은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과거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이라는 정책추진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 이미지로 환골탈태 중이며, 농촌의 미덕을 더욱 살리고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사업 마련 필요

- 지금도 농촌은 여전히 '늪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희망'을 넘어 '소중하다'라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희망과 소중함이 국민 개인의 삶, 기업의 성장,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도농 상생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 마련 필요

○ 농촌에서 확대되고 있는 다양성, 도시와 농촌 간 차별성 및 상호보완성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계의 공간개발 전략 마련의 필요. 단, 현시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 사업부터 차근차근 계획하여 추진

- 농촌의 저밀도성과 상대적 미개발 상황을 저개발이나 낙후의 상황으로 인식하기보다

는, 도시와 농촌 간 관계 속에서 ‘비어 있음에서 기회 발견하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정부 역할 중요

- 우선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확인되는 성과와 문제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점차 사업 범위 확대 필요

* 초기에는 관계인구, 기업활동의 (부분) 유치 등에서 시작해 향후에는 지역개발 전략 사업,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 등으로 기획하여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과 같은 초기 (시범) 사업부터 핵심 대상과 사업 추진단계,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모두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의 이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업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 대상을 선정했던 귀농·귀촌 정책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한계가 존재

* 도농 간 전략적 상생의 관계 구축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개별 농촌지역의 미래 비전이나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향후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과 같은 새로운 도농 상생 촉진을 위한 정책 사업의 기획에는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과의 관계, 도시기업들의 기업활동 이전을 위해 농촌에서 확충해야 하는 입지 요소, 제도적 걸림돌, 가능한 인센티브, 농촌지역과 주민의 의향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은 농촌의 단순한 공간개발이나 정비와 같은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도농 상생’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반하여 ‘혁신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잠재력,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실현을 돕는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희망이 아닌 실체로서) 가능성, 농촌주민과 농촌이 도시민 및 도시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생공간’으로서의 발전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도시 또는 농촌으로의 일방향 소통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이점 요소들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계의 접근 필요

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관련 국내외 정책과 사례

1. 국외 사례

1.1. 일본의 원격근무 정책

□ 일본 정부의 원격근무⁷⁾에 대한 목표⁸⁾

○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2019)에 따라 두 가지 목표를 세움.

- 일본 정부는 첫째, 2020년까지 원격근무 도입 기업을 2012년의 3배로 확대하고, 둘째, 2020년까지 원격근무 도입 기업을 2016년의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원격근무 도입 기업 비율: 11.5%('12년)→ 34.5%('20년 목표)

* 재택근무자 비율: 7.7%('16년)→ 15.4%('20년 목표)

7) 일본에서는 원격근무를 텔레워크(telework)로 부르기도 함.

8) 総務省 2020.

□ 원격근무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의 연계 방향

○ 일본은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원격근무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황 조사 및 목표 설정)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은 원격근무 추진 현황 조사와 원격근무자의 의식·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내각 관방 IT실은 정부 목표를 설정함.
- (환경정비) 총무성과 후생노동성은 환경 정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근무 관련 지침을 개정함.
- (보급전개) 원격근무의 보급을 전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식개혁, 노하우(Know-How) 확산, 도입 지원, 성과 확산 등의 관점에서 부처별 사업을 추진함.

〈표 3-1〉 원격근무 보급 확대 방향 및 사례

구분	의식개혁	Know-How 확산	도입 지원	성과 확산
방향	일과 생활의 균형 추진	기획 사업에 원격근무 관련 전문가 지원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사례	공무원의 재택근무 실시 (내각 관방·내각부)	상담센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총무성·후생노동성)	원격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기기 등 보조 (총무성·국토교통성)	우수사례 표창,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사례 홍보 (총무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자료: 総務省(2020).

□ 원격근무 관련 중앙정부 사업 및 예산⁹⁾

○ 일본의 부처들이 원격근무 보급을 위해 수행한 대표적 사업들의 예산은 다음과 같음.

- 원격근무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함.
 - *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통계(통신 이용 동향 조사)['19년 79백만 엔(총무성)]
 - * 원격근무 인구 실태조사['20년 15백만 엔(국토 교통성)]
- 원격근무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 원격근무 보급 확대 추진사업 ['20년 248백만 엔(총무성)]
 - * 원격근무 상담센터 설치사업 ['20년 47백만 엔(후생 노동성)]
 - * 국가 전략 특구의 원격근무 지원사업['20년 58백만 엔(후생 노동성)]
- 민간기업 등에 대한 사무기기·사무실 개선 비용을 보조함.

9) (출처) 総務省(2020).

- * 시간 외 노동 등 개선 보조금(원격근무 코스)['20년 96백만 엔(후생 노동성)]
- * 지역 IoT 구현·공동이용 종합지원 정책['20년 400백만 엔(총무성)]
- * 사회자본 정비 종합교부금을 활용한 원격근무 지원['20년 7,627억 엔(국토교통성)]
- 원격근무 관련 사업의 성과확산을 추진함.
 - * 원격근무 보급 확대 추진사업['20년 248백만 엔(총무성)]
 - * 원격근무 보급 촉진을 향한 기운 양성사업['20년 110백만 엔(후생노동성)]
 - * 위성사무실 매칭 지원사업['19년 10만 엔(총무성)]

□ 일본 지자체의 워케이션 지원 방향

○ 각 지자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워케이션 관련 기반시설의 정비를 지원함.
 - * 초고속통신망 정비,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무공간 조성 등
- 이용자 확보 및 중앙정부 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 이미지 개선을 추진함.
 - * 와카야마현의 '와카야마 워케이션 프로젝트', 나가노현의 '신슈 리조트 텔레워크'
-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함.
 - * '20년 중앙정부의 'GoTo 트래블 캠페인'과 연계하여 보조금 또는 쿠폰을 지급
 - * Go To 캠페인(일본어: Go To キャンペーン)은 2020년에 일어난 일본의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이며, 그중 'Go To 트래블'은 국내 여행대금 총액의 1/2 상당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1.2. 일본의 위성사무소 및 워케이션 사례

□ 한적한 농촌에서 일하기: 위성사무소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워크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일과 생활의 균형이 명문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근무환경이 다양해짐.

○ 위성사무소는 본사 기능을 분산시킨 사무실로, 주로 지방에서 운영되며 본사와 공유오피스의 성격이 혼합된 원격근무 형태의 일종임(강민정·박선미 2020).

- 지방의 지역자산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본사에서 임대사무실 형태로 활용함.
- 총무성 ふるさとテレワーク(Furusato Telework)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위성사무소 시설 구축과 원격근무 환경정비를 위한 비용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택이나 숙박시설, 탁아소 등의 시설도 함께 운영함.

□ 도쿠시마현 위성사무실 프로젝트 연혁 및 지원제도

○ 도쿠시마의 위성사무실 유형은 체류형과 순환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김동영 2021).

- 체류형 위성사무실: 직원이 상주하고 본사 기능의 일부를 갖게 하거나, 백 오피스 업무 등을 실시하는 형태임. 본사 직원들이 이주하여 일하는 경우나 현지에서 인재를 고용한 사례도 있음.
- 순환형 위성사무실: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교육의 장으로 거점을 둔 형태임. 일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음.

〈표 3-2〉 도쿠시마 위성사무실 프로젝트 추진 연혁

연도	추진 연혁
2010년	2011년 산간 지역까지 광통신망을 구축
2011년	NHK 등 매스 미디어에 카미야마정 위성사무실의 동향이 보도되면서 카미야마 도시에 진출하는 IT기업이 증가
2012년	지역·NPO·진출 기업·행정 등이 협력해 '도쿠시마 위성사무실 프로모션 팀'을 결성 전국 굴지의 광대역 통신망 환경과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위성 사무실의 매력을 홍보
2013년	지역 과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표창하는 '제1회 플래티넘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지방창생의 '도쿠시마 모델'로 각종 매체에 소개
2015년	소비자 청 이전을 검토
2016년	소비자 청 이전을 위한 '카미야마 벨리 위성 사무실 콤플렉스' 업무 시험 실시
2017년	소비자 청의 정책 수립 거점으로서 '소비자 행정 새로운 미래 창조 사무실'이 현청 내에 개설
2019년	도쿠시마현은 2018년도 훗카이도와 함께 위성사무실 개설 기업 수 전국 1위 달성
2020년	소비자 청 유치 노력이 결실 「소비자 청 새로운 미래 창조 전략 본부」가 현청 내에 개설, 최초로 국가의 본청 기능 이전 목표를 달성

자료: TOKUSHIMA Satellite office 홈페이지(<https://www.tokushima-workingstyles.com/project>, 2021. 4. 23.).

○ 도쿠시마현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근무를 통한 지역창생을 추진함.

- 매칭 이벤트 실시, PR 활동의 강화, 위성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함.

〈참고〉 도쿠시마현 위성사무실 프로젝트

1. 사업 개요
 -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자
 - 본사의 사무소를 현에 설립할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현 내에서 새로운 위성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업자
 2. 보조금 교부 대상 경비
 - 비품 구입비
 - 여비 교통비
 - 기타 개설과 관련되는 경비
 3. 보조 내용
 - 보조율: 2/3, 보조 한도액 : 100만 엔(한화로 약 1,000만 원)
- ※ 비교
- (1) 사무실 개설에 따른 비품 구입비 보조 상한액은 30만 엔이 상한
 - (2) 여비·교통비는 사무실 개설 1개월 전부터 사업 완료까지의 현의 왕래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보조를 실시(보조 상한액은 10만 엔). 또한 현 이동에 걸리는 렌터카 비용은 보조 대상 경비이나, 회사 차량 또는 자가용 등의 비용은 비보조 대상.
 - (3) 현의 다른 보조금의 교부 대상인 경비는 제외
 - (4) 보조 대상 경비에 대해서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액 제외

자료: TOKUSHIMA Satellite office 홈페이지(<https://www.tokushima-workingstyles.com/news/1145>, 2021. 4. 23.).

〈표 3-3〉 도쿠시마 위성사무실 관련 지원제도

제도	보조 내용	
도쿠시마현 고향 포토 SOHO 사업자 유치 사업 보조금	현의 과소화된 지역에서 창조 사업 또는 SOH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무소 개설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을 조성	
도쿠시마시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장에 고용 장려금 등을 교부	
고마쓰시마시 정보통신 관련 사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정보 통신 관련 사업, 창조적 사업 또는, SOH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소의 유치를 위해 그 사업자가 시내에 사업소 개설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신규 지역 고용 창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아와시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사업소의 신설, 증설, 이전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세금 감면, 토지 취득 비용의 보조, 고용 장려금의 교부 등을 실시	
미요시시 기업 입지 장려금	미요시 시내에서 창조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무실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 지원	
무기정 지원제도	체험 시설로 동네 시설을 제공	체험시 숙박 비용을 보조 - 1박당 3,000엔(최대 4명)
미나미정 소규모 사업 창업 지원제도	동네 점포 또는 사업체를 소유, 신설 또는 임차하여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그 대표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지원	
미나미정 정주 촉진에 관한 주거 개조 비용의 보조	새로운 주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할 경우 증개축 공사에 조성	
쓰루기정 빈 점포 등 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	동네의 빈 점포에 신규 출점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빈 점포의 채권자가 당해 사업장의 개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50만 엔, 또는 수비의 1/2 금액 중 작은 금액)	

자료: TOKUSHIMA Satellite office 홈페이지(<https://www.tokushima-workingstyles.com/download>, 2021. 4. 23.).

□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徳島県 神山町) 사례

○ (마을비전) 산골마을에 만드는 실리콘밸리, ‘그린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함(정수희·허동숙, 2020).

- (그린밸리) 2004년 일할 수 있는 청년과 일하는 기업을 가미야마로 유치하기 위해 마을주민 20여명이 스스로 만든 비영리법인(NPO)임.
- (기업유치 현황) 도쿄에서 600km 이상 이격된 산골마을인 가미야마에 16개의 기업이 본사로부터 독립된 위성사무실을 개설함.¹⁰⁾

○ (성공요인) 기업 이전으로 기업운영비용 절감 등의 직접적 이익과 도시와 차별화된 환경에서의 근무로 업무성과를 제고함.

- (마을환경) 쾌적한 자연환경과 ‘일감을 가진 사람, 청년, 창업이 가능한 사람을 마을

¹⁰⁾ 중앙일보. 2018. 11. 23. “계곡서도 wi-fi 터진다…IT기업 16곳 몰린 日산골마을.”

로 모시자’는 마을주민들의 개방적인 사고가 중요한 요인임.

- (비용절감) 대도시(도쿄 등) 대비 기업운영비용(임대료 등)이 1/5 수준임.
- (인프라) 2007년에 농촌 마을로선 드물게 마을 전체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 사용자 수가 적은 덕에 인터넷 속도는 도쿄보다 빨라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됨.
- (워라밸 균형)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실시간으로 원격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들과는 산책이나 텃밭농사 등을 즐기는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 (사업전략) 마을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기업이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고, 기업과 마을 상생을 위한 지산지식(地產地食)을 추구함.

- ‘그린밸리’는 무너져가는 봉제공장을 사들여 대형 공유오피스로 활용 중이며, 현재 도쿠시마 현청, 도시락배달 업체 등 10여 개 회사가 이 공간을 이용함.
- 위성사무소 근로자들이 머물며 지역을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워크 가미야마’를 설립, 체류공간의 기능과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함.

〈그림 3-1〉 가미야마정 그린밸리 프로젝트의 주요 시설 및 활동

공유사무실 (가미야마밸리 위성사무실)	빈집 개조사무실 (프랏토 이즈 사무실)	마을 모든 곳이 사무실 (초고속 인터넷 망)
		
예술가 초청 프로젝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일·숙박 가능 숙소 (워크 가미야마)	지산지식(地產地食) (푸드허브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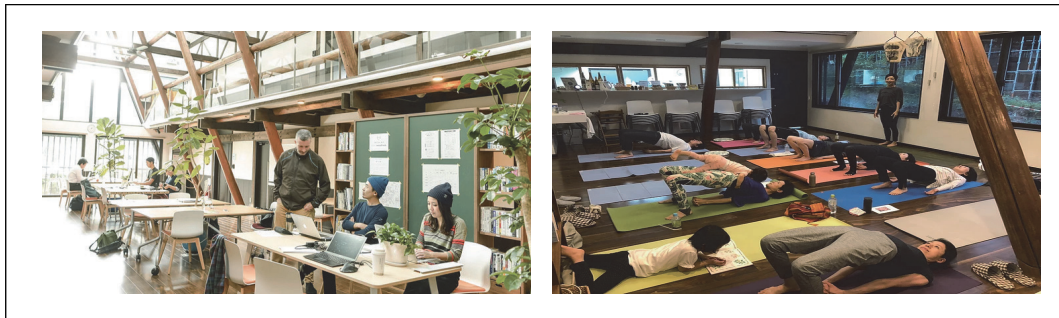
출처: NPO그린밸리 원자료; 중앙일보(2018) 기사 사진 발췌.

□ 일본 나가노현 후지미정(長野縣 富士見町)¹¹⁾

○ 후지미정 텔레워크타운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고, 위성·공유오피스 조성을 추진함.

- 2015년 수도권 8개 기업을 유치하여 거점시설인 ‘숲의 오피스’를 개관함.
- ‘숲의 오피스’는 사무공간(1층 2실, 2층 6실),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식당 겸 교류 공간, 회의실, 부엌, 대학용 세미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업의 위성 오피스가 입주하고 있어 기업 간 연계, 다른 업종 간의 교류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그림 3-2〉 후지미정 숲의 오피스 내부공간 및 네트워크 행사



자료: 정수희·허동숙(2020) 재인용.

□ 일과 여행의 결합: 워케이션 확대

○ 워케이션(Workation)이란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로 장기간 여행지에 머물면서 일하는 업무 혹은 여행을 의미함.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장기화되면서 일터와 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원격근무가 확산됨.
- 이러한 현상과 집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맞물려 일과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결합한 장기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워케이션의 본래 개념은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근무제도

11) 정수희·허동숙. 2020. pp. 292-311.

입. 노동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2016년경부터 일본에 도입되어 인기를 얻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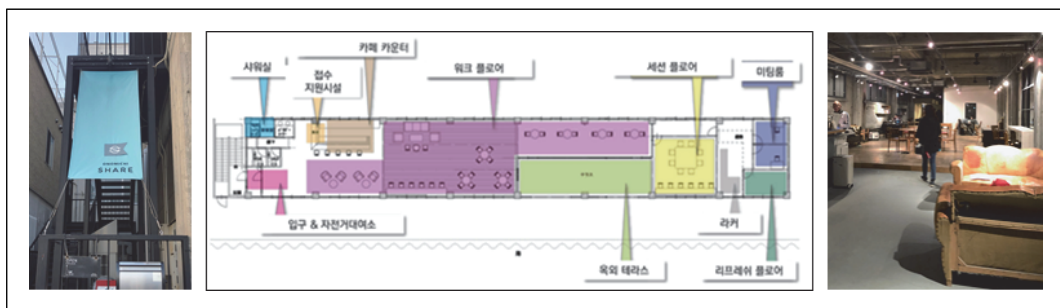
- 일본항공(JAL)은 2017년부터 워케이션을 도입해 연간 최대 5일까지 휴가지에서 근무를 허용함.
- 일본의 워케이션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699억 엔으로 예측¹²⁾되며 2025년경에는 6,622억 엔으로 예상됨.

□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広島県 尾道市) 오노미치셰어(Onomichi Share)

○ 오노미치시는 세토내해(瀬戸内海)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워케이션을 추진함.

- 코워킹 스페이스인 ‘오노미치셰어’와 복합문화공간이자 호텔인 ‘오노미치 U2(Onomichi U2)’를 조성되어 있음. 지역민·관광객·외부 기업 관계자 등이 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지역의 환경과 더불어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함.
- 물류창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층의 구조이며, 접수대, 카페, 야외 테라스, 워크 플로어, 세션 플로어, 회의실, 로커, 샤워실, 자전거 대여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간은 70여 석의 자유석을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구성됨.
- 주변 관광자원(시마나미 사이클링, 세토우치 크루즈, 낚시, 산책, 해수욕, 축제 등)과 연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3-3〉 오노미치셰어의 공간 구성 및 전경



자료: 정수희·허동숙(2020) 재인용.

12) 矢野經濟研究所. 2021. https://www.yano.co.jp/market_reports/C62119600(2021. 6. 5.).

□ 기타 일본의 워케이션 사례

○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홋카이도 등 다수의 일본 지방정부도 워케이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4〉 기타 일본의 워케이션 추진 현황

구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홋카이도
시작 시점	2017년	2019년	2019년
주요 지역 및 시설	시라하마정(시라하마정 제2IT 비즈니스 사무실), 다나베시(와카야마 현립 정보교류센터)	구라 요시시(SUIKO WORK CAMP), 야즈정(송골매 Lab.), 다이센 정(TORICO)	샤리정, 키타미시 등
추진 방향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치 관점을 추가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의 정보 통신·ICT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 및 포럼 개최를 통해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개요와 장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 	관계인구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희시설 리노베이션 및 지역의 카페·호텔 활용으로 시설 투자는 지양 지역 교류 기여금을 포함한 워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단체에 대하여 숙박비의 1/2을 지원하며, 어린이 동반의 경우는 자녀의 숙박비도 지원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관계인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원격근무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홋카이도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실증 사업 실시
예산	매년 400만~700만 엔 (2017~2021년)	2020년 1,300만 엔 2021년 1,000만 엔	2020년 680만 엔

자료: 矢野經濟研究所(2021).

〈그림 3-4〉 와카야마현과 홋카이도의 워케이션 프로그램 홍보 이미지



자료: 矢野經濟研究所(2021).

□ 위성사무소를 넘어 수도권 기업의 소도시 이전도 발생¹³⁾

○ 코로나19 이후 도쿄의 기업들이 주변 소도시, 농촌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전배경) 인구밀집지역 기피 심리와 비대면 업무의 보편화로 특정 도시를 벗어나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함.
- (이전지 선정요인) 임대료,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지자체의 이전 보조금*및 농촌의 쾌적한 업무환경 등이 영향을 미침.

* (히로시마현) 기업유치 보조금 최대 3억 엔, 사무실 임대료·통신비 3개월간 최대 1,000만 원 보조, 숙박비·교통비 90% 지급, 벤처캐피탈 연계자금 지원 등

1.3. 유럽연합의 스마트마을 정책 및 관련 사례

□ 유럽의 스마트마을 개발¹⁴⁾

○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의 스마트마을에 관한 현황과 미래 유럽 농촌에 대한 영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유럽연합의 농촌은 전체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약 21%가 거주하고 있으나,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하여 산재한 문제들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지역은 다양성, 자원,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기회들을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균형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원격근무 증가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

○ 유럽연합의 스마트마을이란 농촌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의 연결성(connectivity) 증대와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¹⁵⁾

13) 헬로디디. 2021. 1. 14. “코로나로 ‘소도시’가는 대기업들… 인구 700명 마을 ‘본사 이전.’”

14) European Parliament 홈페이지(<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2021. 5. 31.).

- 유럽연합에서는 2016년 ‘Cork 2.0 Declaration for a Better Life in Rural Areas’가 선언된 이후로 꾸준히 스마트마을이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마을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복성, 지역의 활력과 기회를 증가시키는 농촌공동체를 의미하며, 혁신의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제시되었음.

〈표 3-5〉 농촌의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

구분	사례			
공공 서비스	전력 공급	안전 및 치안 (감시 카메라)	원격교육	교통(telebus), 원격진료 및 돌봄
공공 관리	전자 행정	폐기물 관리 (폐기물 양 측정 센서)	도시계획 (디지털화)	환경 관리
개별 기업	정밀 농업	온라인 거래 (지역상품)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농촌 관광	공유경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 유럽연합 내에서 다양한 스마트마을의 사례가 운영 중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¹⁵⁾

- (디지털화) 프랑스의 Lormes 지역에서는 ‘Digital Mission’이라는 단체가 지역의 디지털화를 돕기 위해 세워졌으며, 2008년에는 Digital hub를 개관하여 166개 공동체에 디지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독일의 Oberrosphie 지역에서는 70만 유로를 투자하여 120개 가구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목재칩 난방 시설을 보급하였고, 지역 내 농민들이 협동하여 에너지 생산과 분배를 하고 있음.
- (사회적 혁신) Iberian Ecovillage Network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13개 eco-village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리빙랩에서는 환경 영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음.
- (건강 및 사회 보장) 스페인의 Castellon 지역에서는 농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의료 목적을 위한 농촌 택시 서비스(rural taxi service for medical purposes initiative)’를 운영하고 있음. 병원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

¹⁵⁾ 유럽의회조사처. 2021. 재정리.

¹⁶⁾ 유럽의회조사처. 2021.

은 5,000명 이하 규모의 농촌 거주자들에게 무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 루마니아의 Piscu 마을에서는 도자기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청년들에게 지역 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음.

○ 스마트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현재 유럽농촌개발펀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post-2020 공동농업정책에서도 스마트마을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음.

- 스마트마을 만들기는 공동농업정책의 유럽농촌개발펀드와 주민 주도의 농촌개발인 LEADER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연합의회에서는 3,000만 유로 상당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했고, 이는 다분야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과 두 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스마트마을과 농촌공동체의 회복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됨.

□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갖춘 공유오피스(Co-working Spaces with Childcare)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음(강민정·박선미 2020).

- 런던에 위치한 'Third Door'는 영국 최초로 설립된 육아 가능 코워킹 스페이스로서 육아서비스와 업무시설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함.

〈표 3-6〉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사례(Co-working spaces with childcare)

국가	도시	시설
독일	켈른	Cowoki
	베를린	JuggleHub
	라이프치히/베른	Rockzipfel
	프랑크푸르트	Cowork & Play
이탈리아	밀라노	Qf
		Cobaby at PianoC
	피렌체	Spazio Co-stanza
	바리(Bari)	FeelGood Coworking
	로마	L'alveare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nome House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Coworking Cvernovka
	슬로바키아	Unicare Coworking
스페인	그레나다	CoFamily Coworking
스위스	생 쉴피스	The Village

자료: 강민정·박선미(2020).

□ 이탈리아의 ‘Smart Working’ 도입 사례

○ 2019년에는 이탈리아 바리(시)와 IT 컨설팅 기업인 Fincons Group가 ‘Agile Working(Smart Working)’을 추진함(강민정·박선미 2020).

- 근로자와 고용자 간 제약요건은 최소화, 업무 유연성은 최대화하여 근로자가 근무장소 및 시간, 방식에 관계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시민중심의 혁신적 디지털 공공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CITADEL(Empowering Citizens to Transform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s) 프로젝트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함.
-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06시~22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무실 외 타 지역 또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럽의 ‘New way of working in public administration(공공부문의 새로운 근무방식)’ 프로젝트

○ 2018년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별 업무방식에 대한 논의 및 새로운 업무방식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함 (강민정·박선미 2020).

-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EIPA(Europ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포함 10개국 이상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총 6개국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각국의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7〉 유럽 공공부문의 ‘새로운 근무방식’ 사례

국가	추진 주체	추진 내용
스페인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accumulated work time(누적된 노동시간)’을 통해 부모나 자녀, 장애아동 등 돌봄을 목적으로 3개월 내 연간 노동시간의 평균 8%인 85시간 이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
벨기에	FBS BOSA	‘The Bwow Project(BOSA 일방식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근로규칙과, 원격근무에 대한 실행계획, 작업과정 디지털화 및 새로운 IT 툴, 자유좌석 공간 도입 등에 대하여 고위직부터 하위직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 조직을 통해 통합 방식으로 일괄 추진함.
노르웨이	State run organisations	197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를 추진했으며, 2007년부터는 약 16만 명의 노르웨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라트비아	MoEPRD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of Republic Latv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의 20% 이내, 그리고 주당 최대 1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연 근무시간제도를 시행함. • 14세 이하 자녀나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당 근무시간의 최대 40%, 최대 2일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함. •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ICT 환경을 도입하고, 부처 내 유아시설을 설립해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이탈리아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3년간 이탈리아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중 10% 이상을 원격근무 근로자로 지정하여 월 최대 5일 이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이고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시간 동안은 당직시간(on-call)이 필요함.
프랑스	Bourgogne-Franche-Comte (부르고뉴 프랑슈콩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TSD(원격근무지 근무)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실시 • 업무에 따라 인근 두 지역(Besancon, Dijon) 센터에서 근무가 가능함.

자료: 강민정·박선미(2020) 재인용.

1.4. 미국의 원격근무 도입 사례

- 미국은 텔레워크 촉진법(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을 제정해 원격근무제를 전담하는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수립함(강민정·박선미 2020).
 - 오바마 정부에서는 원격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원격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축소시킴.
 - 코로나19 이후, 트럼프 정부는 입장을 바꿔 원격근무,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를 장려함.
- 연방정부는 인사관리처와 총무청에서 원격근무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근무 지원 포털(Telework.gov)를 운영함.
 - 주 정부는 원격근무 지침 및 모델에 따라 각 주의 원격근무 정책을 추진함.

〈표 3-8〉 미국 주 정부의 원격근무 도입 사례

지역	프로젝트명	추진 내용
테네시주 (Tennessee)	AWS(Alternative Workplac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 from home(재택근무), mobile work(모바일근무), free address(유연·자유좌석제)로 원격근무 형태를 구분하였고,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사무실 공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됨. • 이후 2016년 시범사업을 마치고, 2017년 총 23개 중 17개 부서에 확대 추진됨.
유타주 (Utah)	A New Workplac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모바일워크, 자유좌석제로 원격근무 형태를 구분하고, 2018~2019년 예산관리 부서 공공부문 근로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 총 5개 부서 136명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대기질 개선, 부동산 활용 강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근로 생산성 향상, 인재확보 및 채용강화 의 5대 목표성과 달성
버지니아주 (Virginia)	민간부문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022년까지 원격근무 도입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및 제반 비용에 대하여 최대 5만 달러 감면 • 원격근무 근로자 1인 기준 1,200달러 지원 및 원격근무정책 및 성과평가를 추진할 고용주에게는 1회 최대 2만 달러 지원

자료: 강민정·박선미(2020) 재인용.

□ 코로나19의 나비효과, 실리콘밸리 떠나는 IT기업¹⁷⁾

○ (현황) 코로나19 이후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텍사스 등지로 이전

* IBM,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테슬라(예정), 오라클(예정) 등

○ (이전 배경) 인구밀집지역 기피 심리와 비대면 업무의 보편화로 특정 도시지역을 벗어나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전

○ (이전지 선정 요인)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부담 경감 등 세제혜택

〈표 3-9〉 캘리포니아주(실리콘밸리 지역)와 텍사스주(오스틴 지역)의 세제 비교

구분	캘리포니아주(실리콘밸리 지역)	텍사스주(오스틴 지역)
법인세	8.84%	없음
개인 소득세	최고 13.3%	없음

자료: YTN(2021) 기사 일부 발췌.

17) YTN. 2021.01.23. “코로나19의 ‘나비효과’ ...실리콘밸리 떠나는 IT기업들”.

2. 국내 사례

2.1.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사례

□ 국내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 경북도의 농촌 힐링워크(Healing-work) 사업 사례¹⁸⁾

- 장기간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농촌에서 힐링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가족들이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숙박공간 및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등 체류형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도-라운피플(주)-의성군-만경촌 농촌체험휴양마을 간 업무협약을 통해 힐링워크 사업을 추진함.
-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공간 제공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방문 등 도농 교류의 확산과 농촌지역의 활력 증대임.
- 기업연계 농촌힐링워크 제1호에 참여한 라온피플(주)의 직원 10여 명은 지난 4월 19~20일 만경촌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머물며, AI 기술을 스마트팜에 적용할 새로운 아이템 구상을 위해 현지 스마트팜 딸기농장 방문 및 휴양마을에서 진행되는 비트차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체험함.
- 제1호 기업으로 참여하는 라온피플(주)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직원 수는 167명, 매출액은 307억 원임. 올해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기업 중 1위로 선정된 기업임.
- 워케이션 참여 직원들이 창업농가 대표로부터 센서 기반 스마트팜 기술이 각 작물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어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듣자 2단계 스마트팜으로 진입할 수 있는 AI 머신비전 기술을 제안함.

¹⁸⁾ 웹플러스뉴스. 2021. 3. 25. “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에서 힐링하며 일한다. 경북도-라운피플(주)-의성군-만경촌 농촌체험휴양마을간 업무협약(MOU).”

〈그림 3-5〉 사업 대상지 전경 및 관련 사업 홍보 이미지



자료: 경북도 원자료; 국민일보(2021) 기사사진 발취.

- 경북도는 문경시 궁터마을과 (주)푸드나무와 연계한 제2호 기업연계 농촌힐링워크를 추진 중임.
- (주)푸드나무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직원 수 169명, 연 매출액 1,171억 원의 코스닥 상장기업임. 국내 최초의 간편건강식 전문 플랫폼 ‘랭킹닷컴’을 운영하고 있고 ‘맛있답’, ‘러브잇’ 등 16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식품전문 기업임.
- 더불어 2021년 7월 제3호 농촌힐링워크 참여기업인 (주)에쓰푸드는 주력 제조공장이 충북 음성과 약 1시간 거리에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해 상주시 승곡마을과 ‘농촌힐링워크’ 협약을 체결하였음.
- 연매출 1,700억 원에 임직원 수는 729명에 달하는 (주)에쓰푸드는 올 여름부터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이 승곡마을을 방문해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면서 황토방 체험, 꽃감을 활용한 강정 만들기, 사과파이 만들기 등 상주의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체험을 계획 중임.¹⁹⁾

○ 강원도관광재단의 위케이션 기획전²⁰⁾

- 강원도관광재단은 인터파크투어와 함께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늘어나는 재택근

19) 서울경제. 2021. 7. 1. “코로나시대 농촌의 재발견...경북 ‘힐링워크’ 사업 눈에 띄네.”

20) [출처] 강원도관광재단 보도자료(‘21.3.31) 강원도관광재단X인터파크투어, 강원 위케이션 특화상품 선배

무·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기획전을 실시함

- 객실 특가, 바다전망 객실로 업그레이드,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 커피·음료 이용권 제공과 같이 워케이션 상품에 특화된 맞춤형 혜택을 도내 각 호텔과 리조트에 맞게 구성함.
- 워케이션 상품 구매 및 체크인 후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한 사진 업로드 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함.

〈그림 3-6〉 기획전 홍보 이미지



자료: 강원도 관광재단 보도자료(2021).

자료: 인터파크 '강원도로 출근하자' 거리정보 이미지.

○ 워케이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주)스트리밍하우스²¹⁾

- 스트리밍하우스의 서비스 '휴일(HYUIL)'은 숙박공간과 업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함께 연계해 워케이션을 위한 중장기 체류에 최적화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함.

21) 서울경제. 2021. 1. 18. "스트리밍하우스, 2020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우수기업' 선정."

- 부산 영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숙박 및 업무공간이 제공되며 지역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봉산마을 머물 프로젝트’를 진행함.

〈그림 3-7〉 봉산마을 전경과 업무·숙박공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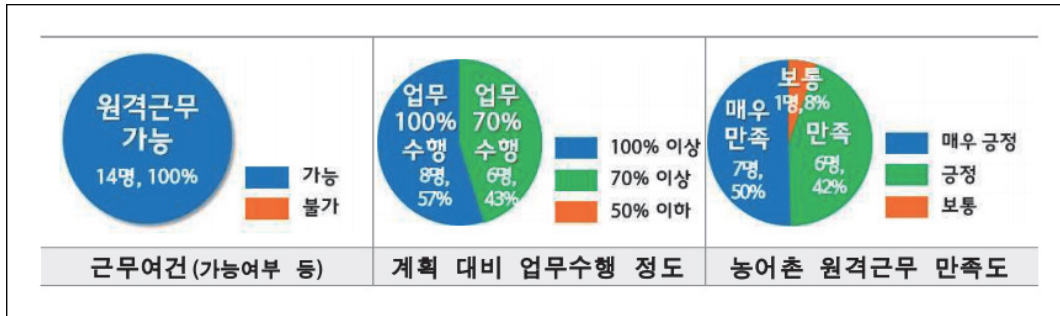


자료: Hyull 페이스북(<https://images.app.goo.gl/Qs7UZuoB7h6ze3su9>, 2021. 5. 4.).

○ 농어촌공사, ‘KRC 농어촌 원격근무’ 체험단 운영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어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함.
- ‘KRC 농어촌 원격근무’란, 농어촌휴양마을을 거점으로 한 지역체류형 원격근무를 뜻함.
- 2021년 9월 6일~10월 8일간 총 3회차, 회차별 3일간 전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담양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3개소에 4~5인씩 분할하여 시행함.
- 주요 활동으로는 3일간 09~18시 원격근무시스템을 활용한 개별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무 외 시간(18~09시)에는 농촌체험, 레저 등 개별 휴양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 원격근무’ 참여 소감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토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함.
- 체험단 14명에 대하여 개별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업무적 측면에서 전원(100%)이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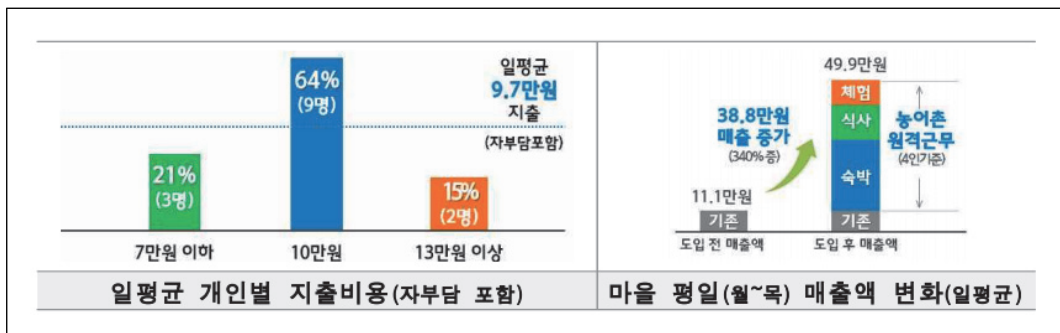
〈그림 3-8〉 농어촌 원격근무의 업무 여건 및 효율성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농어촌의 관점에서도 체험단이 마을식사, 체험, 숙박 등에 자부담을 포함해 일평균 97,000원/1인 지출하면서 기존 대비 주중 숙박 및 체험의 증가로 매출액이 향상되었으며, 마을 만족도 또한 상승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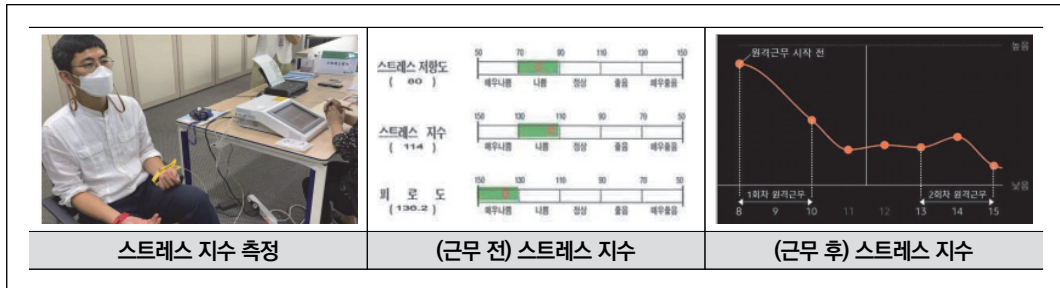
〈그림 3-9〉 농어촌 원격근무의 지출 규모 및 매출액 변화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개인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국립나주병원에 의뢰해 체험단 6명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결과, 자연 내 근무 및 휴식에 따라 위케이션 전후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60% 저하됨으로써 심신 회복 및 재충전 효과가 나타남.

〈그림 3-10〉 농어촌 원격근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전후 측정 결과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농어촌 원격근무 시범 운영 결과, 업무 집중도 상승,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고, 농어촌 마을 시설의 인터넷 속도 등의 업무환경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농어촌 원격근무’는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조직문화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2.2. 국내 공유오피스 관련 사례

□ 공유오피스 활용 사례

○ 서울에 위치한 공유오피스로는 ‘위워크(WeWork)’, ‘패스트파이브(Fastfive)’ 등이 있으며, 공유오피스 유형 중 코워킹 스페이스가 가장 많음. 전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임(김선웅 외 2019).

- 공유오피스 유형은 단순한 공간 분할 임대 및 비품 구비 정도만 해주는 ‘서비스드 오피스’, 세미나, 파티 등을 주최해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입주기업에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직접 투자하는 ‘기업지원형 코워킹 스페이스’로 구분됨.
- 공유오피스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입지를 선택한 이유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50.2%)’, ‘입지가 주는 인지도(13.7%)’, ‘관련 업체(동종 업체,

거래 업체, 유사 분야 업체 등)와의 협업 용이성(10.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향후 오피스 입지로 희망하는 곳의 특성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역세권에 위치하고자 하는 수요를 볼 수 있음.

○ 가장 일반적인 공유오피스의 형태로 알려진 코워킹 스페이스는 회사마다 각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워크(WeWork)’는 사업을 다각화하여 교육 사업인 ‘위그로우(WeGrow)’, 주거 사업인 ‘위리브(WeLive)’, 헬스사업인 ‘라이즈(Rise)’를 운영하고 있음. 위그로우의 경우 대부분 위워크 건물 내에 위치해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음.
- ‘패스트파이브(Fastfive)’는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뿐 아니라 출퇴근 셔틀버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입주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지원형 코워킹 스페이스는 주로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마루180’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사업체에 필요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교육 등 종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며, ‘페이 잇 포워드 문화(Pay-it-forward, 서로 도와주는 문화)’를 통해 선후배 기업 간 네트워킹을 장려하는 동시에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출자자 역할도 수행함.
- ‘르호봇’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인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며, 공공 및 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스파크플러스’는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연 2회 제공하며, 투자자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 코워킹 스페이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기업들이 대기업 TF팀이나 중소기업들을 유치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업무공간 인테리어를 디자인해주는 커스텀오피스(Custom Office) 서비스를 제공함.

-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인 '베스핀글로벌', 지그재그 앱을 제공하는 '크로키닷컴' 등이 대표적 입주 사례이며, 최근 동화약품은 사옥 전체를 패스트파이브 시청점으로 이전함.

○ GCUG(Global Coworking Unconference Conference 2017)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7년 공유오피스는 개수는 2배, 공유오피스 이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2년에는 3만 개소 이상, 이용자는 5백만 명으로 예측됨.

- 서울시 공유오피스의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3년간(2015~2018년) 공유오피스 공급 면적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70개 공유오피스 공급기업이 3도심(강남권, 도심권,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231개 지점을 운영함(김현주·최경은·김형종 2020).

○ 공유오피스의 성장 요인은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양방향시장 형태이기 때문임. 공급자는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 수요자는 유연한 계약 구조 및 각종 비용 절감 효과 등의 효용이 있음(Genstar 2018).

- 그러나, 공유오피스 공급 기업은 장기간 임차 계약을 맺으나 입주 기업과는 단기 임대계약을 맺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지닌 위험성이 존재함.

□ 융합형 레지던스 및 메이커스페이스형 사례

○ 문화예술 분야 융합형 레지던스는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형 레지던스로는 금천예술공장이 대표적이며, 지역형(낙후지역) 레지던스로는 예술공장두레가 대표적 사례임.
- 장소 유형별로는 폐교형 레지던스로 성주의 금수예술마을, 화천의 시골마을 예술터밭 등이 있고, 재래시장형 레지던스로는 광주의 대인예술시장, 춘천의 낭만시장이 있으며, 기타시설형 레지던스로 서울의 문래예술공장과 인천의 스페이스빔 등이 있음.

○ 지역형(낙후지역) 레지던스 형태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창작(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임(전병태 2013).

-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감자꽃스튜디오는 개인이 임대한 산촌폐교(옛 노산분교)를 2004년 평창군이 매입해 민간 위탁경영 형태로 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이며, 사무실, 도서관, 박물관, 극장, 카페, 마을센터가 갖추어져 있고, 최근에는 강릉, 춘천 등으로 공간을 확장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 대학로에 모임 및 교류를 위한 라운지와 울릉도에 농가주택을 활용한 소규모 레지던스를 운영 중임.
- ‘이원 아트빌리지’는 충북 진천군에 위치하며, 7개 전시관과 세미나실, 행사장, 공방, 아틀리에, 아트숍, 카페, 건축사무소, 게스트하우스, 음악 감상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 중 레지던스는 건축가 및 예술가들에게 창작(연구)공간을 제공함.
-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예술공장 두레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전문 공연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체험의 장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임.
- 경북 성주의 금수문화예술마을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외 전시 및 미술제, 공연 프로그램, 민속극학교 운영 중
- 경북 봉화군의 봉화시장은 젊은 예술가들을 모아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아트스테이(Art stay)’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시장 내 빈 점포에 창작실을 마련하고, 이외 정기적인 전시회, 문화학교, 공연 및 행사, 지역 축제, 캐리커처 프로젝트, 밴드 동아리를 운영함.

○ 지역의 기타 시설형 레지던스 사례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하고 있음.

- 인천 스페이스빔은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를 운영해 국내외 예술가들이 실험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창작공간과 일정 체류비 및 창작비를 지원함.
-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가시리창작센터는 마을 빈 창고와 같은 유휴공간을 개조하여 주민휴게공간 및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을 조성해 예술가 대상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북 남원에 위치한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는 지역 금융회사인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 중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남원 시내에 2년 동안 공실이었던 신한은행 건물 2, 3층에 청년들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조성되면서 추남이네 카페와 소품샵, 그리고 3D 프린터, 레이저커파머, 비닐 커파머 등의 장비가 구축된 공유작업공간과 개인사무실로 쓸 수 있는 부스들이 갖춰짐.
-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청년 대상 창업교육 및 지역아동 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 마을스태이 및 마을호텔 사례

○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은 폐광지역으로 폐허와 같던 골목길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가꾸며, 마을 내 민박, 식당, 카페 등을 연계한 ‘마을호텔’을 운영 중임.
- ‘골목길에 누워 있는 호텔’을 콘셉트로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존 커피숍, 인쇄소, 사진관, 식당 등의 상가를 결합해 호텔처럼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음.
- 호텔 투숙객은 주변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 프로그램을 연계해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 중임.

〈그림 3-11〉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전경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 서천군 한산면 커뮤니티 호텔 H

-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위치한 ‘커뮤니티 호텔 H’는 총 8개의 숙박공간과 1개의 커뮤니티 공간이 갖춰져 디지털노마드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된 멀티스페이스를 지향함.
- 2018년 한산문화제를 통해 유입한 문화콘텐츠와 IT 활동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인 (주)자이엔트*가 운영 중임.
 - * 청년 세어하우스 정책 연계지원, 지역청년을 위한 보조금 안내 및 지원 등 청년의 창업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소곡주 양조장의 온라인 판매 지원, 한산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육 등 지역 사회 문제해결활동 등을 수행
- 일반적인 호텔처럼 수직적 구조가 아닌 마을 전체에서 수평적 구조로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마을호텔’을 추구하며 현재 동네에 있는 숙소, 카페, 식당,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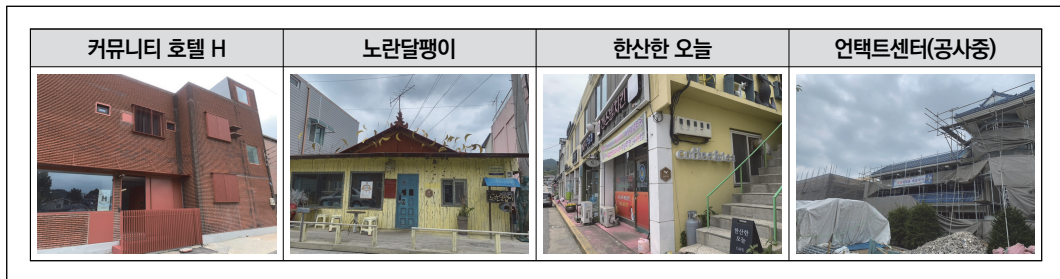
관, 서점 등과 연계하고 있음.

〈표 3-10〉 커뮤니티 호텔 H 및 연계시설 개요

공간명	규모	공간 구성	주요 용도
커뮤니티 호텔 H (2020년~)	여관 리모델링 1층 148㎡ 2층 148㎡	1층(커뮤니티 라운지&주거공간(6인*1실)) 2층 청년 주거공간(1인*7실)	삶기술학교 교육 청년을 위한 단기/장기 레지던스 운영 (3개월 단위)
노란달팽이 (2018년~)	창고 리모델링	웰컴센터 커뮤니티카페 게스트하우스(6실)	숙박공간&커뮤니티 공간
달팽이하우스 (2020년~)	빈집 리모델링	공유주택	숙박공간
한산한 오늘 (2020년~)	상가 리모델링	리빙랩&커피	공유오피스&카페
엔택트센터 (2021년 9월 예정)	마을회관 철거, 신축(1,2층)	스마트 공유 오피스 1층(커뮤니티 카페) 2층(오피스 4개 기업)	충남 15개 기업과 연계, 먼 소재 지 전체 wifi망 구축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그림 3-12〉 커뮤니티 호텔 H 및 연계시설 전경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지역자산 활용 및 지역 내 연계관광체계 구축 사례(곡성)

- ‘섬진강 기차마을’로 잘 알려진 옛 곡성역은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곡성군의 노력으로 현재는 곡성과 가정역을 잇는 증기기관차를 운영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곡성아트빌리지 시그나기는 곡성역 기차마을과 폐역인 가정역을 연계하여 증기기관 기차와 레일바이크를 운영하여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으며, 미술관, 갤러리, 무대시설

도 마련해 곡성군 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마련하였음.

- 아트빌리지 시그나기에는 유리세공 체험장, 세라믹세공 체험장을 위치시키고 직접 작가들을 섭외해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홈쿠킹 체험장을 만들어 파티시어를 섭외해 임대하고, 제과제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 곡성 로즈카카오축제를 기획해 비수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트빌리지 시그나기에서도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인력을 유치함.
- 펜션과 폐기차를 캡슐호텔로 개조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주변에 집라인, 천문대, 청소년 야영장, 레일바이크, 섬진강 래프팅 등이 집적되어 있어 여가 및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함.
- 다만, 현재 업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스마트워크 사례로 한계가 있음. 그러나 향후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30~40명 정도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에 선정되어 준비 중임.
- 압록상상스쿨은 폐교를 활용해 시청각실, 워터파크 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역아동 및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조함.
- 곡성에 천문대가 있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 투자하여 돔 형태의 50동을 만들 예정임.
- 이외에도 가정역 인근에 한옥 및 초가형 펜션으로 이루어진 효(孝) 테마파크 '심청 이야기마을'이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음.

〈그림 3-13〉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및 곡성아트빌리지 시그나기 시설 전경



옛 곡성역



레일바이크



폐기차를 활용한 캡슐호텔 및 라운지



암록상상스쿨

자료: 저자 작성.

3. 시사점

□ 기업과 지역의 수요를 연결하여 지속가능성 제고

○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농촌에서 제공하며, 낙후되고 침체한 농촌 발전 수요를 연결하여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

- 한적하고 쾌적한 근로를 위한 분사 형태의 위성사무소, 일과 쉼이 연계되는 워케이션, 지역현안 및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기업 이전·분사와 창업 등 다양한 기업의 수요가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산업 혹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

□ 이용자 수요와 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유형 구분 필요

○ 스마트워크 업무 특성, 국내외 추진 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업 유형을 크게 워케이션 형과 원격근무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워케이션형) 기업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농촌 등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자기 계발, 연수 등의 단기 체류형 업무방식
- (원격근무형) 기업의 분사·위성사무소 등의 형태로 장기적으로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방식

□ 일+쉼, 자연+편리, 유대와 협력의 극대화 필요

○ 농촌에서의 근로 활동이 도시에서의 근로 활동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과 쉼이 연계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농촌이 제공할 수 있는 자연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반면에

농촌의 취약한 생활환경 속에서 어떻게 도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 주민이 서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공간과 이벤트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협력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농촌의 연결성 증대와 디지털화는 기본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불리한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촌지역 5G망 구축, 미래형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조성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함.

-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하드웨어(접근성 등), 소프트웨어(교육, 의료 등) 부문의 연결성을 증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원격진료 혹은 이동진료, 찾아가는 보건소, 농산촌 유학 지원 등 찾아오는 도시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혹은 스마트워크 이용 근로자들도 농촌형 교통모델 서비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농촌지역 유·무형의 자산 및 시설 재활용

- 농촌지역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농촌에서의 스마트워크 활동과 연계

- 단순 여가·휴양·관광 연계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자신의 생활을 엮을 수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여 관심도 및 호응도를 제고

- 고한읍 및 한산면 사례를 통해 볼 때 지역의 유희자원을 활용한 공유사무실 등을 확보하고, 지역 내 다양한 체류시설(체험마을, 마을 민박, 호텔)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신규 시설의 건립도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자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광정책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강화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휴가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을 농림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농촌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함.

□ 외부 자원 및 지역주민 참여 기회 확대

- 지역관광과 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 등에 외부 전문 자원 및 지역주민 활용 방안을 마련함.
 - 도시근로자 등의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인적 자원 혹은 전문 경영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 지역 주민은 지역자원 발굴사, 마을 해설사, 지역사회 차원의 농촌 환경 가꾸기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도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증진

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수요

1.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

1.1. 기업 대상 설문 조사

□ 기업 대상 설문조사 개요

○ 기업체 대상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함.

- 2021년 4월 28일~5월 10일 동안 전국 10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e-mail 설문조사를 진행함.
- 스마트워크의 필요성 및 추진 현황, 농촌 스마트워크 이용 의향 및 선호 유형, 조건 등을 조사함.

〈표 4-1〉 기업 대상 설문 개요

조사대상	전국 소재, 전 업종 대상 기업
표본수	102개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9.70%point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1년 4월 28일(화) ~ 5월 10일(화) (약 1.5주)

○ 기업 대상 설문은 전국 1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규모는 종사자 1,000명 이상(33.3%). 매출액 1,000억(68.6%) 이상인 규모가 가장 비율이 높음.

- 조사 대상 기업의 주력 업종은 제조업(57.8%)이었으며, 서울(45.1%)과 경상권(20.6%), 경기·인천(19.6%)에 본사를 두고 있음.

〈표 4-2〉 기업체 대상 설문 응답 표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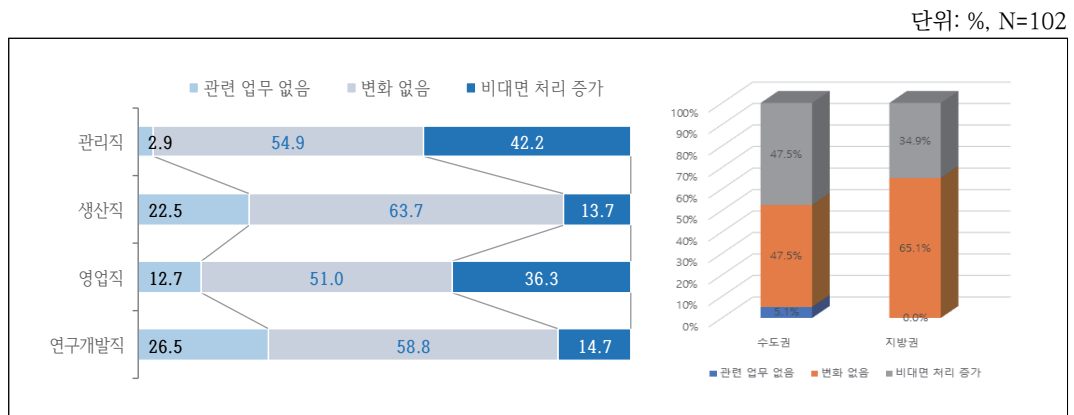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표본 비율	
[전체]	102	100.0%	
농촌 관련성	관련 있음	21	20.6%
	관련 없음	81	79.4%
주력 업종	제조업	59	57.8%
	기반시설 관련업	5	4.9%
	건설업	8	7.8%
	도소매업	7	6.9%
	운수·창고업	5	4.9%
	지식서비스산업	3	2.9%
	금융·보험업	4	3.9%
	사업 관리·임대 서비스업	9	8.8%
	예체능·여가 서비스업	2	2.0%
	기업규모	대기업	18
중견기업		63	61.8%
중소기업		21	20.6%
종사자 규모	100인 미만	5	4.9%
	100~199인	14	13.7%
	200~399인	18	17.6%
	400~699인	19	18.6%
	700~999인	12	11.8%
	1,000인 이상	34	33.3%
매출규모	300억 원 미만	8	7.8%
	300억~500억 원 미만	8	7.8%
	500억~1,000억 원 미만	16	15.7%
	1,000억 원 이상	70	68.6%
조직 형태	단독사업체	16	15.7%
	본사/본점	56	54.9%
	공장/지사/영업소	30	29.4%
본사 소재지	서울	46	45.1%
	수도권	20	19.6%
	충청권	11	10.8%
	경상권	21	20.6%
	전라권	2	2.0%
	강원/제주	2	2.0%

□ 기업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비대면 업무 처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업무 분야 중에서는 관리, 영업 분야 업무의 비대면 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비대면 업무처리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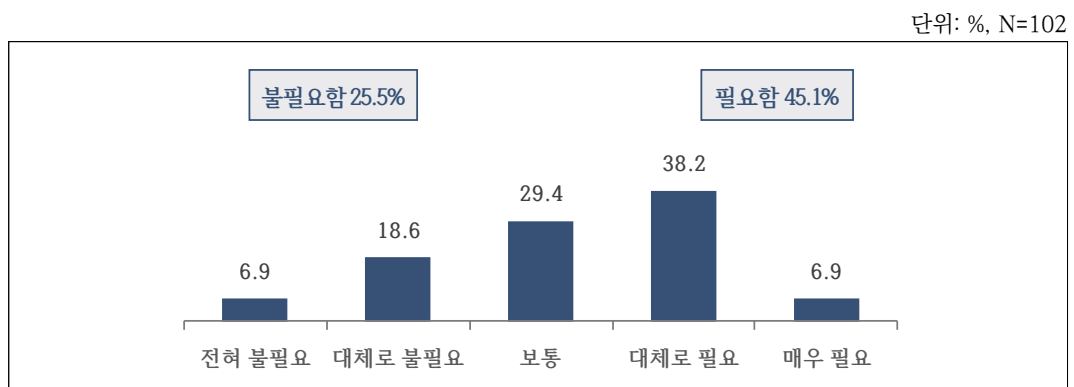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현재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새로운 스마트워크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

* 조사 시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스마트오피스를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제시

〈그림 4-2〉 새로운 스마트워크 업무방식의 도입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 새로운 스마트워크의 유형으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약 2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농촌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이용 의향이 52.4%로 관련성이 낮은 기업(16.0%)을 크게 상회함.
- 그중 농촌 위케이션형(여행연계형)의 수요가 높고 원격근무형(지역혁신형 및 위성사무소형) 순으로 수요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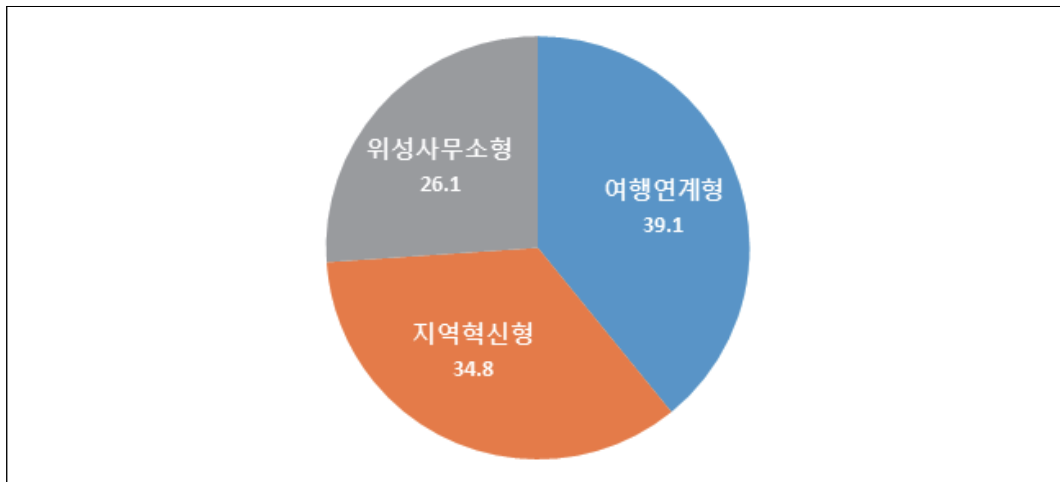
〈표 4-3〉 농촌 관련성에 따른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관심·이용 의사 차이

단위: 개, %		사례수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이용 의향		지역혁신형		위성사무소형		여행 연계형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02	76.5	23.5	84.3	15.7	88.2	11.8	82.4	17.6
농촌 관련성	관련 있음	21	47.6	52.4	61.9	38.1	76.2	23.8	66.7	33.3
	관련 없음	81	84.0	16.0	90.1	9.9	91.4	8.6	86.4	13.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관심·이용 의사가 있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유형 비율

단위: %, N=46(유형에 대한 중복 응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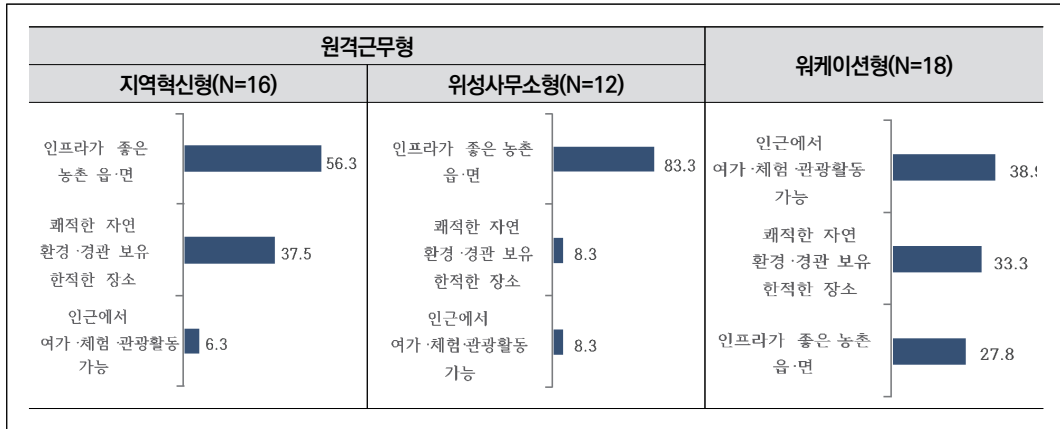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원격근무형은 생활·업무 인프라가 좋은 지역, 위케이션형은 여가·체험·관광활동이 가능하고 쾌적한 자연 및 한적한 장소를 선호함.

〈그림 4-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요구되는 입지 특성

단위: %, N=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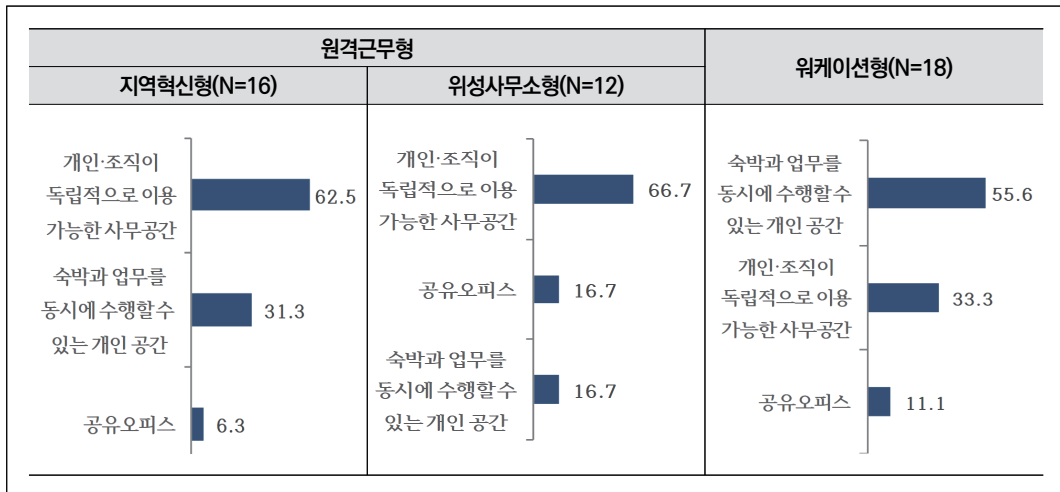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원격근무형은 주로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무공간을 요구하고, 워케이션형은 숙박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개인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

〈그림 4-5〉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요구되는 업무공간 특성

단위: %, N=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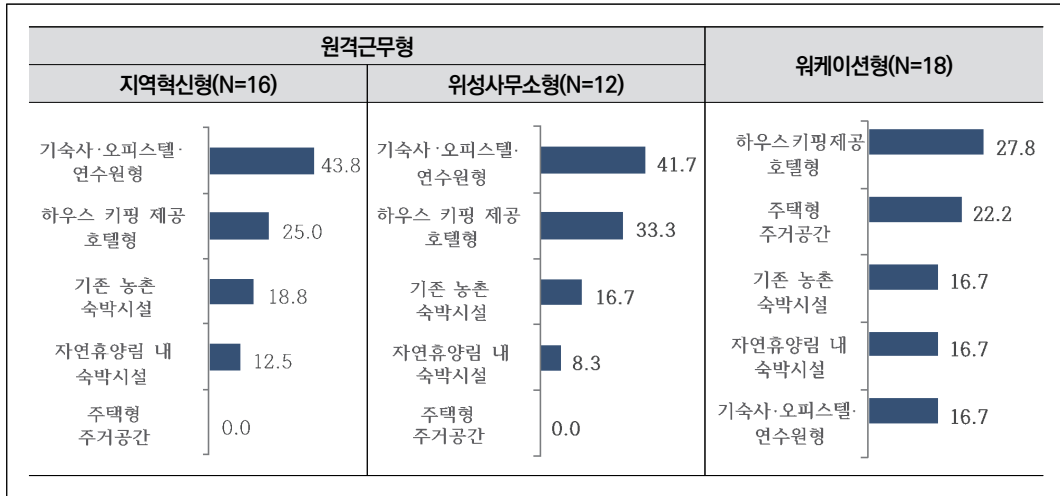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주거·숙박공간에 대한 수요는 원격근무형은 기숙사·오피스텔·연수원형 등을 선호하고, 워케이션형은 호텔형·주택형 공간을 선호함.

〈그림 4-6〉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요구되는 숙박·주거 공간 특성

단위:%, N=24



자료: 저자 작성.

1.2.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이용에 관한 근로자 조사 결과

□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 만 20세 이상 성인, 기업에 소속된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함.

- 2021년 7월 16일~23일까지 전국 47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함.
- 스마트워크의 필요성 및 추진 현황, 농촌 스마트워크 이용 의향 및 선호 유형, 조건 등을 조사함.

〈표 4-4〉 근로자 대상 설문 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기업에 소속된 임금근로자
표본수	47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4.50% point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1년 7월 16일(금) ~ 7월 23일(금) (1주)

- 응답자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약 25%로 대체로 고르게 표집되었고, 기혼자와 미혼자의 비율도 57.6%와 42.4%로 비슷하게 구성되었음.
- 사무종사자의 응답 비율이 61.4%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13.5%, 중견기업은 26.2%, 중소기업은 53.8%로 표집되었음.
- 서울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61.2%로 가장 많고 비수도권은 20% 정도 표집됨.

〈표 4-5〉 근로자 대상 설문 응답 표본 구성

구분		사례수	표본 비율
[전체]		474	100.0%
성별	남성	288	60.8%
	여성	186	39.2%
연령	20대	110	23.2%
	30대	121	25.5%
	40대	127	26.8%
	50대 이상	116	24.5%
혼인 여부	기혼	273	57.6%
	미혼	201	42.4%
가구 형태	1인 가구	107	22.6%
	배우자만 함께 거주	39	8.2%
	자녀만 함께 거주	13	2.7%
	배우자/자녀와 함께 거주	221	46.6%
	3대 이상 함께 거주	47	9.9%
	부모님과 거주	47	9.9%
직업	관리자	70	14.8%
	전문가·관련 종사자	62	13.1%
	사무종사자	291	61.4%
	서비스종사자	18	3.8%
	영업/판매종사자	9	1.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	0.6%
	기능원·관련 기능종사자	12	2.5%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3	0.6%
	단순노무종사자	6	1.3%
소속 기업규모	대기업	64	13.5%
	중견기업	124	26.2%

(계속)

구분		사례수	표본 비율
소속 기업규모	중소기업	255	53.8%
	기타	31	6.5%
근무지	서울	290	61.2%
	수도권	82	17.3%
	충청권	37	7.8%
	경상권	36	7.6%
	전라권	20	4.2%
	강원/제주	9	1.9%
	거주지	서울	295
수도권		79	16.7%
충청권		31	6.5%
경상권		37	7.8%
전라권		22	4.6%
강원/제주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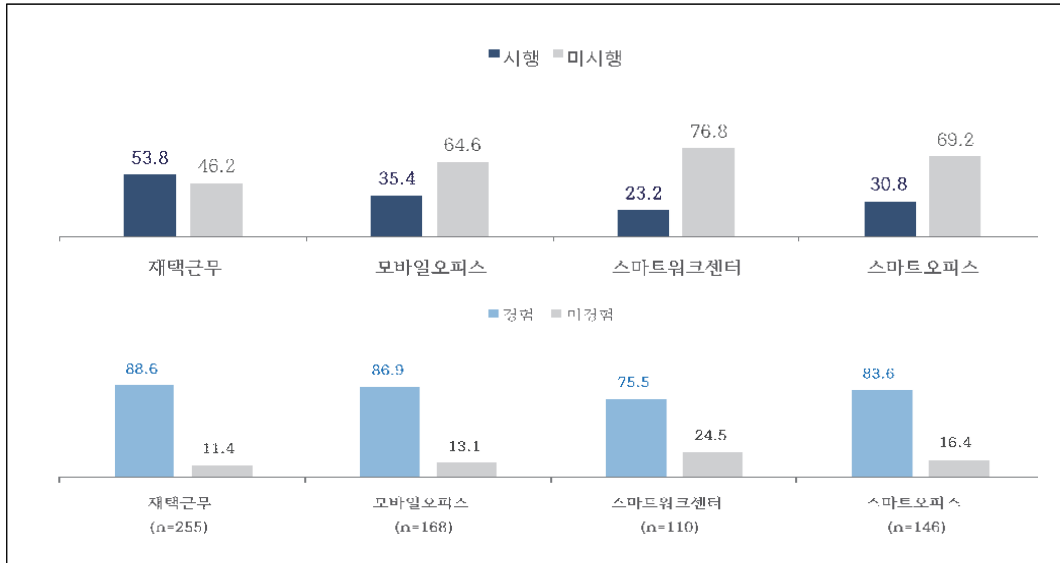
□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스마트워크 유형별 실시율은 ‘재택근무’ 53.8%, ‘모바일오피스’ 35.4%, ‘스마트워크센터’ 23.2%, ‘스마트오피스’ 30.8%로 나타남.

- 회사가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경험 비율은 ‘재택근무’ 88.6%, ‘모바일오피스’ 86.9%, ‘스마트워크센터’ 75.5%, ‘스마트오피스’ 83.6%로 나타나, 회사에서 스마트워크를 시행 시 대다수 근로자가 스마트워크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스마트워크 유형별 시행 여부 및 경험 유무

단위: %, N=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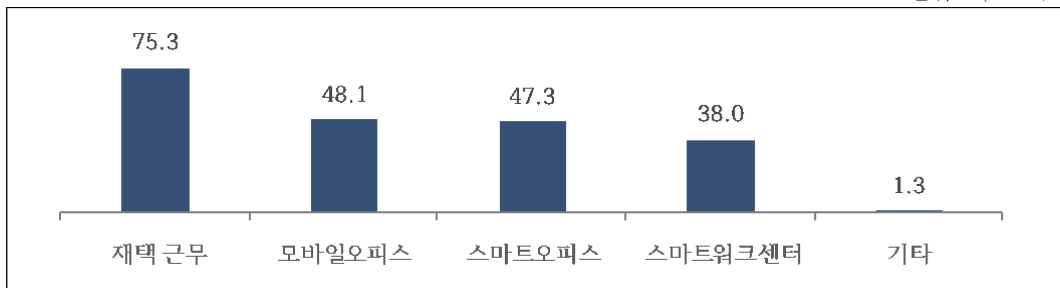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확대 시행을 바라는 스마트워크 유형은 ‘재택근무’가 7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오피스’ 48.1%, ‘스마트오피스’ 47.3%, ‘스마트워크센터’ 38.0% 순으로 나타남.

- 보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워크의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필요함’ 60.3% (‘매우 필요’ 14.3% + ‘대체로 필요’ 46.0%), ‘불필요함’ 8.4% (‘전혀 불필요’ 1.7% + ‘대체로 불필요’ 6.8%)로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8〉 확대를 원하는 스마트워크 유형

단위: %, N=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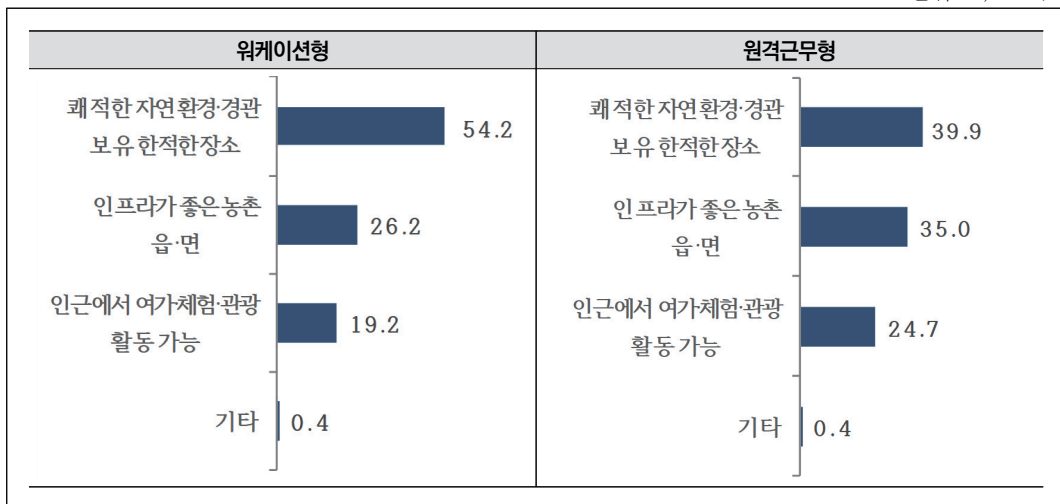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근로자들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필요한 입지 특성으로 '쾌적한 자연 환경·경관을 보유한 한적한 장소'를 선택함.

- 워케이션형에서는 '쾌적한 자연환경·경관 보유 한적한 장소'가 54.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인프라가 좋은 농촌 읍·면'(26.2%), '인근에서 여가·체험·관광활동 가능'(19.2%)의 순으로 나타남.
- 원격근무형에서는 '쾌적한 자연환경·경관 보유 한적한 장소'가 39.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인프라가 좋은 농촌 읍·면'(35.0%), '인근에서 여가·체험·관광활동 가능'(24.7%)의 순으로 나타나, 워케이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농촌 읍·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9〉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갖추어야 할 입지 특성

단위: %, N=474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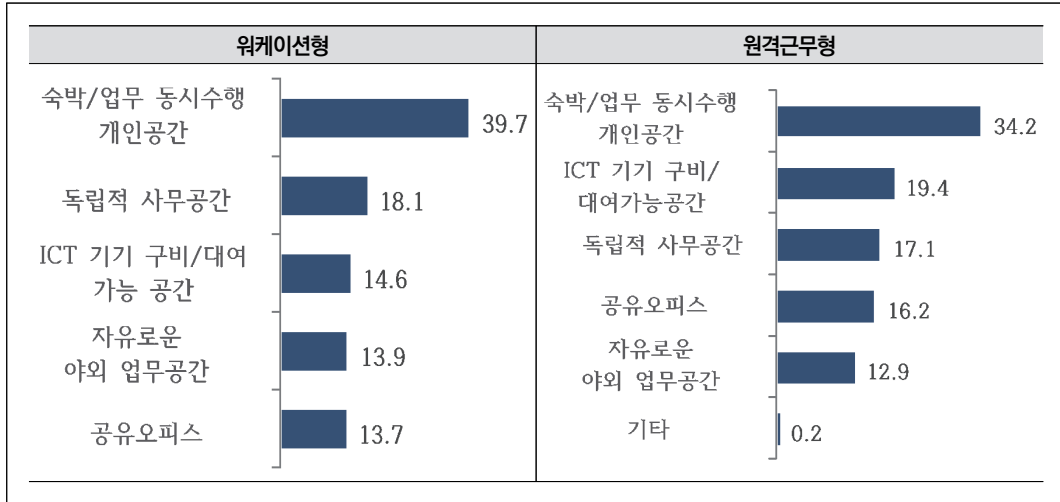
○ 근로자들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적합한 업무공간의 특성으로 '숙박·업무가 동시에 수행 가능한 개인공간'을 선택함.

- 워케이션형에서는 '숙박/업무 동시수행 개인공간'이 39.7%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독립적 사무공간'(18.1%), 'ICT 기기 구비/대여 가능 공간'(14.6%), '자유로운 야외 업무공간'(13.9%), '공유오피스'(13.7%)의 순으로 나타남.

- 원격근무형에서는 ‘숙박/업무 동시수행 개인공간’이 34.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ICT 기기 구비/대여 가능 공간’(19.4%), ‘독립적 사무공간’(17.1%), ‘공유오피스’(16.2%), ‘자유로운 야외 업무공간’(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갖추어야 할 공간적 특성

단위: %, N=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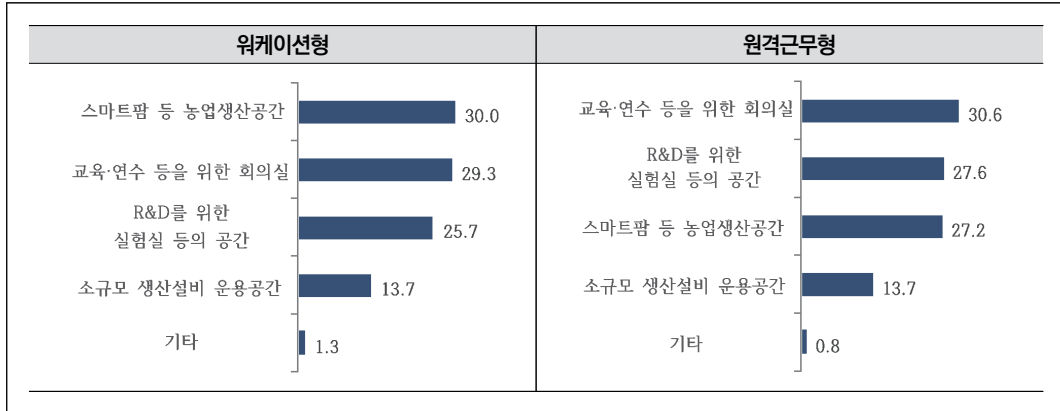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근로자들이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서 업무·주거공간과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워케이션형과 원격근무형이 서로 다르게 응답함.

- 워케이션형에서는 ‘스마트팜 등 농업 생산공간’이 30.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교육·연수 등을 위한 회의실’(29.3%), ‘R&D를 위한 실험실 등의 공간’(25.7%), ‘소규모 생산설비 운용을 위한 공간’(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원격근무형에서는 ‘교육·연수 등을 위한 회의실’이 30.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R&D를 위한 실험실 등의 공간’(27.6%), ‘스마트팜 등 농업 생산공간’(27.2%), ‘소규모 생산설비 운용을 위한 공간’(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업무·주거 외 필요한 공간

단위: %, N=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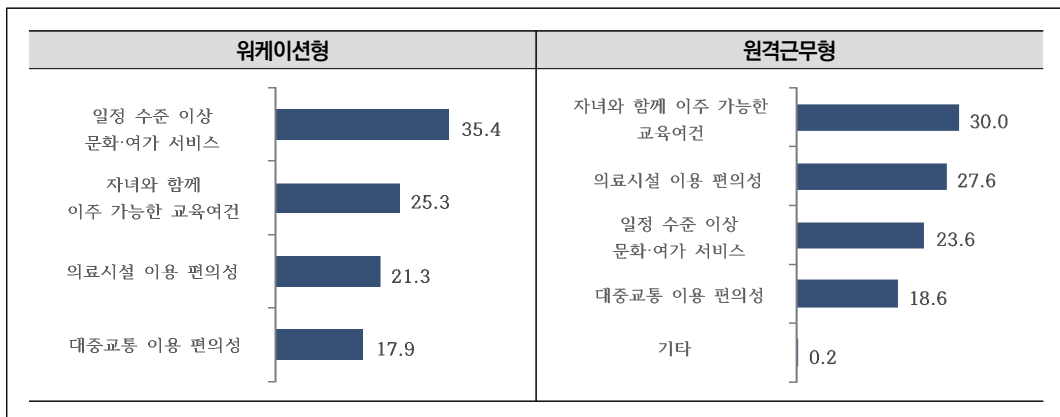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입지할 지역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문화·여가 서비스, 교육 여건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 워케이션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문화·여가 서비스’가 35.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이주 가능한 교육 여건’(25.3%),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21.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17.9%)의 순으로 나타남.
- 원격근무형은 ‘자녀와 함께 이주 가능한 교육 여건’이 30.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27.6%), ‘일정 수준 이상 문화·여가 서비스’(23.6%),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2〉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갖추어야 할 입지 조건

단위: %, N=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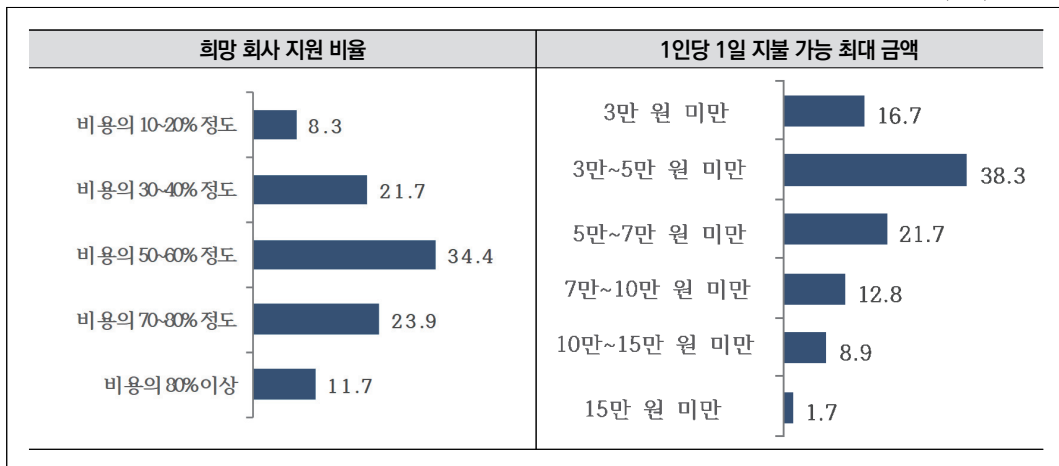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근로자들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이용하는 데 회사가 ‘비용의 50~60% 정도’를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평균 5.4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이용 비용에 대해 회사에 바라는 지원 수준은 ‘비용의 50~60% 정도’가 34.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비용의 70~80% 정도’(23.9%), ‘비용의 30~40% 정도’(21.7%), ‘비용의 80% 이상’(11.7%), ‘비용의 10~20% 정도’(8.3%)순으로 나타남.
- 하루 기준, 1인당 지불 가능한 최대 비용은 평균 5.4만 원으로, 최저 1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파악됨. 구간별로는 ‘3만~5만 원 미만’이 38.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5만~7만 원 미만’(21.7%), ‘3만 원 미만’(16.7%), ‘7만~10만 원 미만’(12.8%), ‘10만~15만 원 미만’(8.9%), ‘15만 원 이상’(1.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이용 시 희망하는 회사의 지원 비율 및 1인당 1일 지불 가능 최대 금액

단위: %, N=180



자료: 저자 작성.

1.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수용 태세에 관한 주민 조사

□ 농촌주민 및 이장 대상 설문조사 개요

○ 농촌주민 및 이장을 대상으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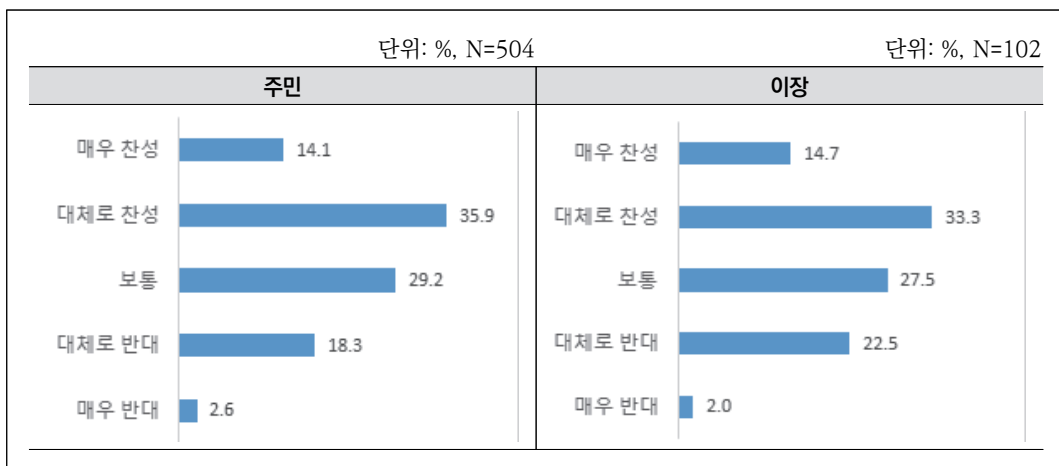
- 2021년 9월~10월까지 전국 504명의 농촌주민과 102명의 이장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함.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찬반 여부는 농촌주민과 이장 모두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찬반 응답 비율도 유사함.

- 주민들의 경우 '매우 찬성'(14.1%)과 '대체로 찬성'(35.9%)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50.0%)에 이르러 '대체로 반대'(18.3%), '매우 반대'(2.6%)로 응답한 비율(20.8%)보다 월등히 높음.

- 이장의 경우 '매우 찬성'(14.7%)과 '대체로 찬성'(33.3%)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48.0%)에 가까워 '대체로 반대'(22.5%)와 '매우 반대'(2.0%)로 응답한 비율(24.5%)보다 높아 주민의 응답 결과와 유사함.

〈그림 4-1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도입 찬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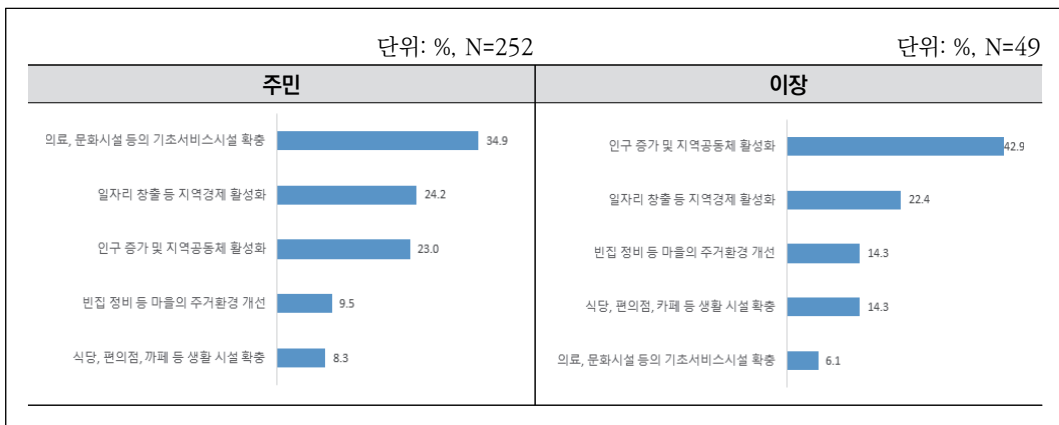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에서 기대하는 사항에서는 주민과 이장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

- 주민들은 의료, 문화시설 등 기초서비스(34.9%)를 원하고 있지만, 이장은 인구 증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42.9%)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특히, 이장의 경우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의료, 문화시설 등 기초서비스 확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매우 낮아(6.1%) 주민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5〉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도입에서 기대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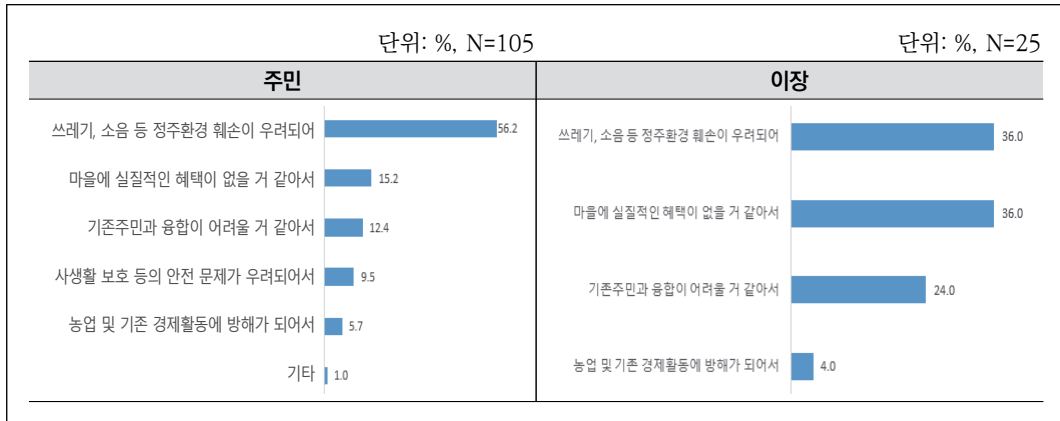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과 이장이 유사하였으나 응답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

- 주민들의 경우 쓰레기, 소음 등 정주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56.2%) 반면, 이장들은 쓰레기 소음 등 정주환경 훼손과,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같은 비율(36.0%)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4-16〉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도입 반대 이유



자료: 저자 작성.

2. FGI를 통한 지자체 실무자 의견 수렴

2.1. FGI 개요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에 대하여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일시: 2021. 5. 4.(화) 16:00~17:30
- 방식: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자 및 전문가: 지역개발 경력 20년 이상의 증평군 및 화천군 실장급·팀장급 공무원, 지역개발 연구 및 수행 경력 20년 이상인 의성군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2. 주요 의견

- 기존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연계하거나 권역사업에서의 유희공간들을 활용하여 3·6·5생 활권에 기반한 통합적 추진이 필요함.
 - 오피스 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사람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
 - 교육·문화·의료·보육 등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정주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함.

-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일자리,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개인보다는 자녀와 함께 와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타 부처나 농식품부 소관의 다른 정책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정책 설계단계에서 정책의 이용 주체가 명확하도록 타기팅이 필요함.
 - 외부인을 유입하는 방식보다도 자연적으로 지역에 오게 되는 사람들, 지역에 대한 공유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설정해야 함.
 - 시설에 대한 이용 주체를 명확히 하되, 기업보다는 지역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가 관건임.

- 일률적인 투자보다는 지역의 기존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세밀화하고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오피스를 구성할 것인지, 스마트 빌리지를 구성할 것인지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과거 유사 정책들에 대한 성패요인 분석이 필요함.
 - 인근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업 유형이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사업 등으로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구축되어 있어서 큰 규모의 재정사업보다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
- 사업의 규모를 낮추더라도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주변 지역에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야 함.

○ 기존 사례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자체의 실수요 파악이 중요

- 해외 사례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이 촉발된 계기, 지역 주민의 수용 과정, 정책 및 제도의 개입, 지자체의 노력 등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요는 필요성에 관계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3. 청년·창업가·예술가 등 잠재 수요자 의견 수렴

3.1. 청년·창업가 대상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의 청년 지역살이 모델 <괜찮아마을>을 제안·운영해온 박명호 공장장에게 청년·창업가가 원하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괜찮아마을>은 현재 지원사업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역살이(한 달 살이 등)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 중임.

○ 농촌에도 IT 기업의 창업·기업 이전 지원 및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기존 대기업, 유니콘·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통해서 농촌지역 내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초기 사업성이 부족하더라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거점이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은 디지털 인재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IT 분야 대기업·스타트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필요함.
- 농촌에 대한 기본적 IT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임. 농촌은 와이파이도 안 되는 곳이 많고, 5G는 주요 도시·거점 위주로만 서비스되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기반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년식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함.

- IT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반, 거주·창업공간이 함께 연계된 곳이 필요하며,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IT 교육 기회 확대 및 온라인 교육 기능 강화가 필요함.

3.2. 예술가 대상 의견 수렴

○ 충청남도·부여군이 추진하고 있는 ‘123사비청년공예인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비공예문화산업지원센터’ 오희영 센터장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예술가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123사비청년공예인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에 예술가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공방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작품의 홍보·판매를 지원하고 있음.

○ 부여군 규암면 공방 입주자들이 모이게 된 주요 이유는 공예인들 간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방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는 것이었음. 또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비공예문화산업지원센터와 같은 지원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예술가들이 단독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많아 공예 공방들이 집적화되었을 때의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입주한 경우가 많음.
- 생활 측면에서 주거시설 부족과 대중교통 불편(교통편 정보시스템 미비), 분리수거 불편 등의 어려움을 호소함.
- 하드웨어가 정비가 된 다음에는 역량 강화교육이나 전시 기획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네트워킹이나 교류, 협업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센터의 지속적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상황임.
- 상위 기관과의 소통 부재와 일방향적인 통보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행정적 절차와 제약 등으로 예술가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음.

4. 시사점

□ 새로운 스마트워크 유형의 개발 필요

- 현재 스마트워크 유형을 경험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새로운 스마트워크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새로운 스마트워크 방식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45.1%)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25.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근로자들의 60.3%도 새로운 스마트워크 유형을 원하고 있음.

□ 기업과 근로자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해 기대하는 특성이 다름

- 기업과 근로자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갖추어야 할 입지, 업무공간 특성에 대한 선호가 다름.
 - 기업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중 워케이션형은 '쾌적한 자연환경·경관을 보유한 한적한 장소'를 선호하지만 원격근무형은 생활·업무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선택함.

- 반면, 근로자들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모든 유형에 필요한 입지 특성으로 ‘쾌적한 자연환경·경관을 보유한 한적한 장소’를 선택함.
- 업무공간 측면에서도 기업은 원격근무형에는 ‘독립적 사무공간’을 원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모든 유형에서 ‘숙박·업무가 수행 가능한 개인공간’을 선호하고 있음.

□ 사업 계획단계부터 지역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 이용자의 다양한 선호와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이 사업 성공의 핵심적 요인임.

- 기업과 근로자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시설 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이 가진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야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5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1.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기본 구상

1.1.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목적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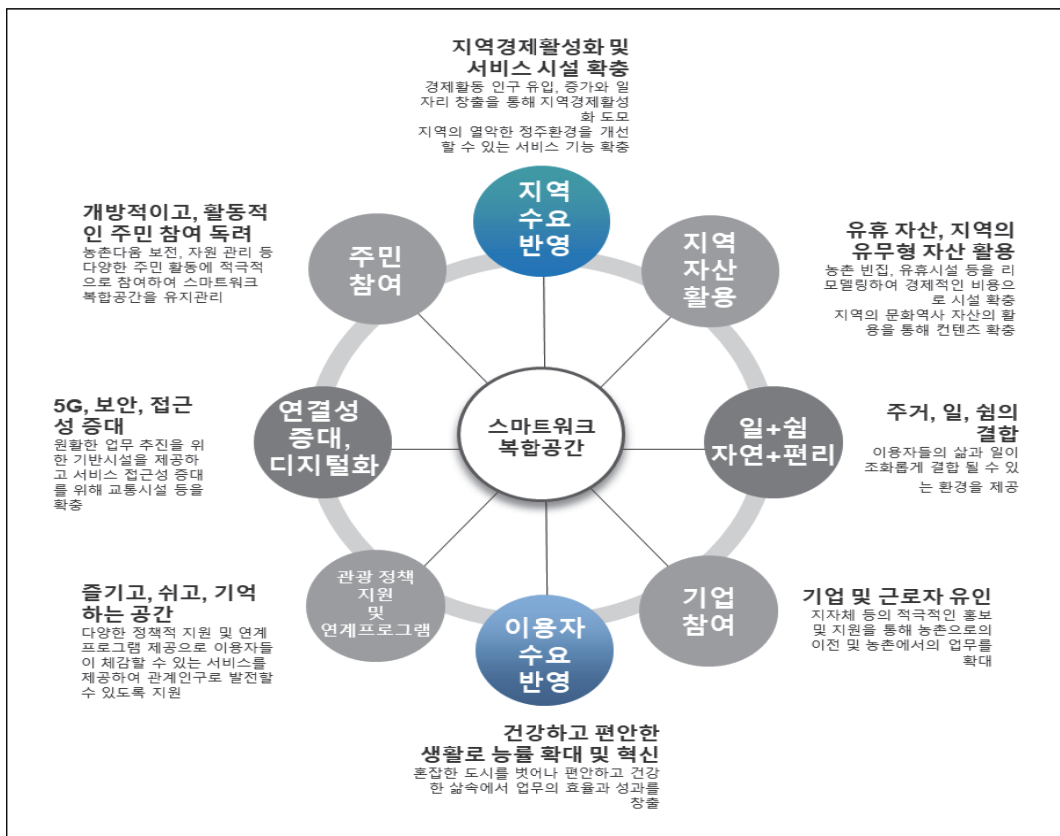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의 목적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은 '도시와 차별화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더불어 국민들의 농촌에서의 일과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농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 간 '관계인구' 증가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도시민에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재충전 공간을 제공함.
 - '관계인구'는 일본의 제2기 지방창생전략에서 사용된 용어로 이주자(정주인구)나 관광객(교류인구)과 달리,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 해결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는 인구를 의미
 - 일본에서는 지역과 현재 관계하는 정도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교류인구, 정주인구, 관계인구로 구분하며 이는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농촌을 포함한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고, 쉬고, 기억할 수 있는 농촌공간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여가 혹은 휴식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를 지원할 정책적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 특히, 근로자는 기업 내 농촌 스마트워크 근로 문화 혹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공급자로서 농촌은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희자산,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고 농촌다움을 보전하는 활동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구현에 이바지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5-2〉 이용자-공급자 측면을 고려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향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1.2.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유형별 특징과 과제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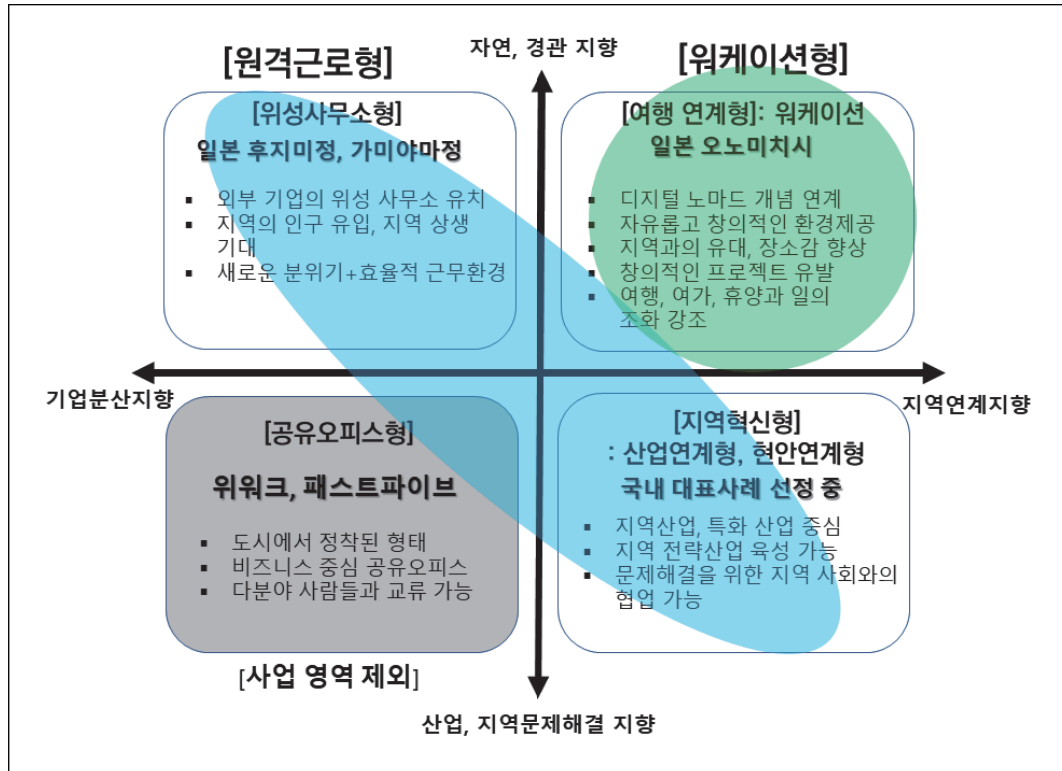
- 기존 사례 및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용 목적(기업분산 ↔ 지역연계), 이용 형태(자연·경관 ↔ 산업 및 지역문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유형을 '위케이션형'과 '원격근무형'으로 구분함.

- 먼저, 근로자가 지역연계를 지향하면서 자연과 경관을 즐기기 위한 여행 연계 형태는 위케이션형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오노미치시임.
 - 위케이션형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과의 유대·장소감을 향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여행, 여가와 일의 조화가 강조되는 형태임.
 - 주로 개별 근로자, 소수의 팀 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며, 장기적 이용보다는 단기적·간헐적 이용의 특성을 보임.

- 위성사무소형과 지역혁신형은 모두 근로자보다 기업이 추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결국 기업의 원격근무지가 생성되기에 이를 원격근무형으로 합쳐서 분류함.
 - 위성 사무소형은 기업의 분산을 지향하는 형태로 자연 및 경관이 좋은 곳에 있어 여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분위기를 생성하는 것을 표방하는 형태로 중·장기적 이용이 주를 이룸.
 - 지역혁신형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기업의 분사를 생성하여 근로자의 만족도 및 효율 증대가 목표라기보다 지역산업과 해당 기업이 연계를 이루고, 지역의 문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임.

- 공유오피스형은 도시에서 적용되는 형태로 비즈니스 중심의 공유오피스에 인력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변 자연경관이나 지역문제에 큰 관심이 없음. 따라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사업 유형으로는 다루지 않음.

〈그림 5-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사업 유형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사업 유형에 따른 이용 형태 분류

사업 유형	목표인구	이용 형태
① 워케이션형 (Work+Vacation)	교류인구	관광, 단기적·간헐적 이용
	관계인구	살아보기, 중기적·빈번한 이용 (지역과의 기술, 지식 등 연결 활동)
② 원격근로형	정주인구	거주, 장기적·상근형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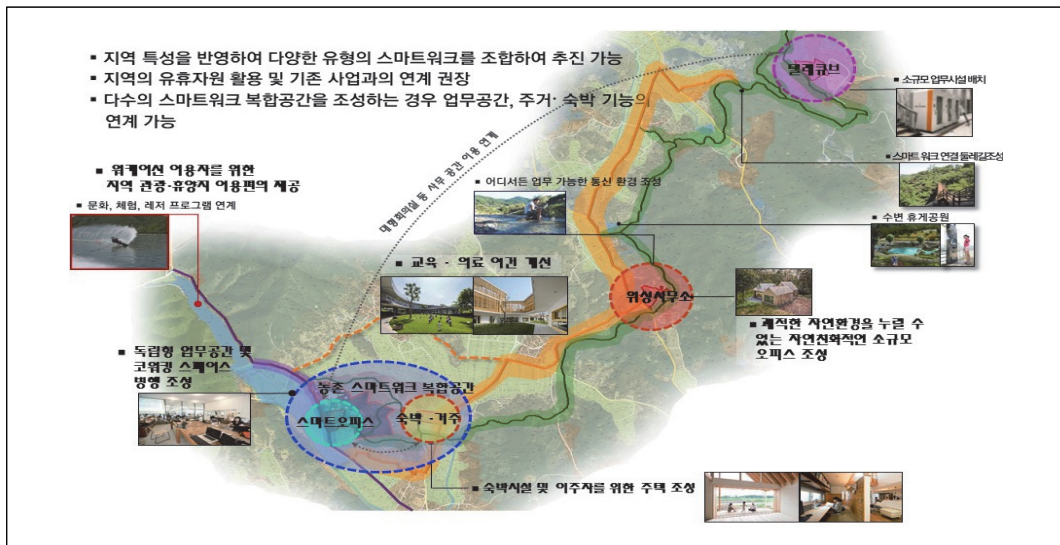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지역 자원 활용 및 유형별 연계

○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조합하여 추진 가능함.

- 자연 경관·관광 자원이 우수한 입지에는 워케이션형과 원격근무형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위해 폐교 등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거주하는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 지자체에서 다수의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업무공간, 주거·숙박 기능의 연계도 가능함.
 - * 쾌적하고 한적한 업무공간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는 소규모 업무공간을 조성해 주며, 숙박과 주요 시설은 인근한 대규모의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과 기존의 숲길, 둘레길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은 신규 조성하며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이용자들이 지역의 관광·휴양·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그림 5-5〉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예시



자료: 저자 작성.

1.3. 유형별 세부 조성 방안²²⁾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기본 구상

○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기업과 근로자의 공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되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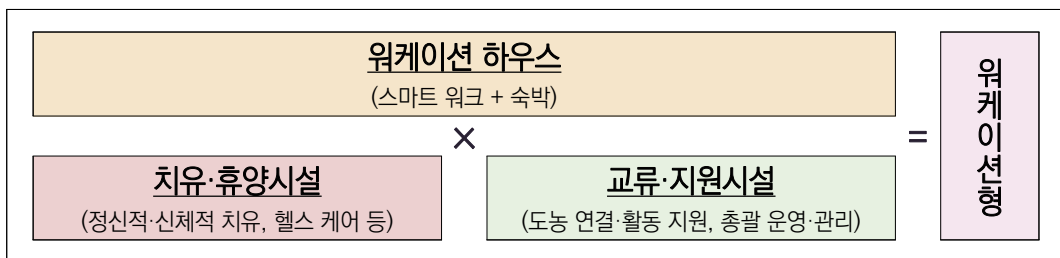
- 워케이션, 원격근무형이라는 농촌 스마트워크 공간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진과 건축사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설의 종류 규모 등을 도출함.
- 수요조사에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입지할 지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조사된 ‘문화·여가 서비스’, ‘교육 여건’을 사업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함.
- 시설의 규모 및 이용 인원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산정함.

□ 워케이션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 중·단기간에 걸쳐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려는 도시 근로자의 워케이션을 위한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함.

- 자연 속에서 심신의 회복과 농촌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워케이션 하우스, 치유·휴양, 도농 교류시설 등이 집적된 공간 조성이 필요함.
 - * 치유·휴양시설 등 기능은 지역 내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연계·대체 가능

〈그림 5-6〉 워케이션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 구성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²²⁾ 유형별 세부 조성 방안은 한국농어촌공사(백금철, 서장흠)와 함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표 5-1〉 워케이션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의 주요 기능

시설 유형	주요 기능
워케이션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휴식의 병행을 고려한 중·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편리한 스마트 워크(일) + 쾌적한 중·단기 숙박(휴식)
치유 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 치유할 수 있는 휴양시설 치유농원, 휴양림, 헬스케어, 산림치유, 농촌체험 등
교류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농촌 간 교류·정보 제공 및 새로운 문화 창조 시설물 임대·유지 및 고객 관리 등을 위한 사무 공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그림 5-7〉 워케이션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주요 활동 관련 이미지



자료: ChosunBiz(2020) 기사 사진 발췌²³⁾, freepik(https://kr.freepik.com/free-photo/group-of-pilates-instructors-exercising-on-reformers_9320424.htm#page=1&query=pilates&position=4&from_view=keyword, 21. 11. 19), 한의신문(2020) 기사 사진 자료 발췌.²⁴⁾

□ 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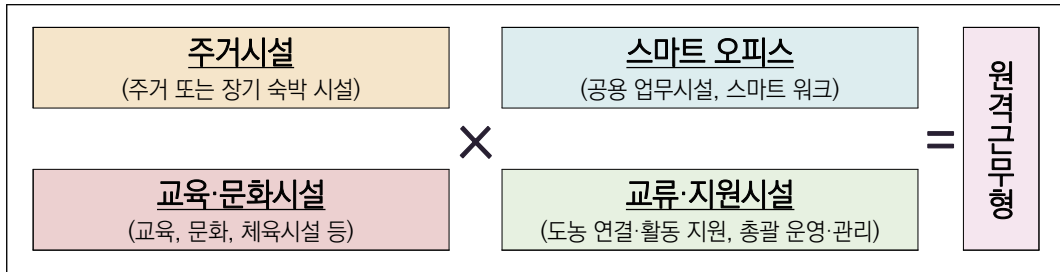
○ 도시 근로자(개인 또는 가족) 및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으로의 이주·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함.

- 개인의 원격근무 및 기업의 이전·분사·위성사무소 설치 등을 유치함.
- 탈도시, 농촌 이주 등 국민수요에 대응한 업무·정주 복합공간을 구성함.
 - * 도시 인적 자원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혁신 가능
- 도시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창작활동을 위한 오피스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함.
 - *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전북 완주 청년보부상'과 같은 지자체 사업 연계 추진

²³⁾ ChosunBiz(2020. 9. 2.) “온천에서 근무, 캠핑장에서 회의”...코로나에 활성화되는 디코 ‘워케이션.’”

²⁴⁾ 한의신문(2020. 6. 25.) “코로나19 대응인력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그림 5-8〉 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 구성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표 5-2〉 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시설의 주요 기능

시설 유형	주요 기능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함이 결합된 업무공간 초고속 인터넷 환경, 공유 오피스, 메이커 스페이스 등
주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원 속 주거시설 주거시설(개인형/가족형), 포켓가든(개인용 텃밭) 등
교육·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작은 영화방, 작은 도서관, 생태놀이터, 커뮤니티 가든 등
교류·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농촌 간 교류·정보제공 및 새로운 문화 창조 시설물 임대·유지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한 사무공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그림 5-9〉 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주요 활동 관련 이미지



자료: 매일경제(2016) 기사 사진 발췌²⁵⁾, 부산일보(2021) 기사 사진 발췌²⁶⁾, Shutterstock(https://www.shutterstock.com/ko/explore/korea-stock-images-0814?kw=shutterstock&c3apid=p67361398787&gclid=EAlaIqObChM15-vE7PWj9AIVMZBoCR3PkgiBEAAYASAAEgI7LvD_BwE&gclsrc=aw.ds, 2021. 11. 9)

25) 매일경제(2016. 5. 29.) “롯데그룹, 지정석·창가 임원방 없애고 스마트 오피스 단장.”

26) 부산일보(2021. 5. 4.) “부산 북항에 ‘문화 셋별’ 뒀다…‘복두칠성 도서관’ 5일 개관.”

2.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추진체계 및 사업화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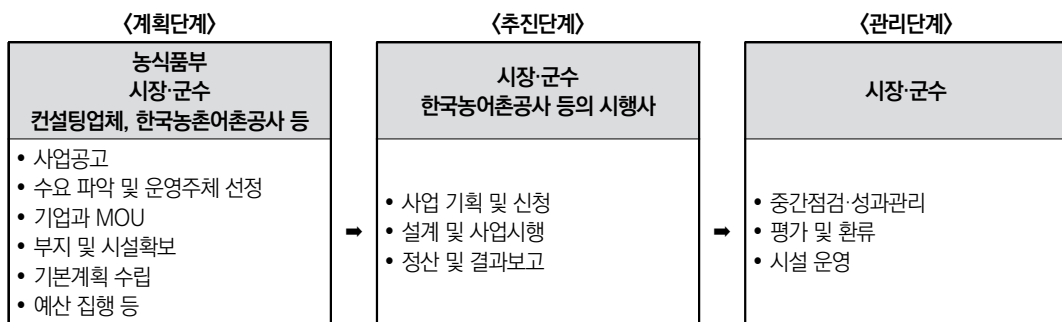
2.1.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 절차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크게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획단계에서는 사업 공고, 계획 수립, 공모 선정, 수요파악 및 운영주체 선정, 기업 MOU, 부지 및 시설 확보, 예산 집행 등이 포함됨.
- 추진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 혹은 민간 컨설팅 업체가 될 수 있음.
- 추진단계에서는 시장·군수 및 사업 시행자(농어촌공사 혹은 건설사) 등이 설계 및 사업 시행, 정산 및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관리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성과관리, 평가 및 환류,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함.

〈표 5-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주: 시장·군수: 기업과 MOU 및 운영주체 파악 및 부지·시설 확보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의 공모 계획 발표(농식품부), 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지자체), 평가, 선정 및 예산지원(농식품부), 사업시행(시·군 및 컨설팅&시행사), 운영관리(시·군) 순서로 진행

〈표 5-4〉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

추진절차	시행 주체	절차 내용
① 사업 공모 실시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공모 계획 및 공문 시행 • (컨설팅 기관) 공모안 작성 등 지원
↓		
② 지자체 공모 신청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파악, MOU 체결, 부지 확보 (부지는 지자체 100% 확보 전제 사업 추진)
↓		
③ 공모 평가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④ 지자체 선정 및 예산 지원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선정 [농식품부] • 예산 신청 [시·군 → 도 → 농식품부]
↓		
⑤ 사업 위탁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 컨설팅&시행사(위탁 범위: 기본계획~준공)
↓		
⑥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군 컨설팅&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시행사) 계획수립 및 자료 작성 • (시·군) 기본·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⑦ 임대·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임대계획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
↓		
⑧ 사업 시행	컨설팅&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른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		
⑨ 준공검사	시·군 컨설팅&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준공검사: 시·군 또는 컨설팅&시행사 • 정산결과보고: 시·군(검사) → 도(보고) → 농식품부
↓		
⑩ 시설물 이관	시·군 컨설팅&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시행사(인계자) → 시·군(인수자)
↓		
⑪ 입주임대 및 운영관리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입주자·주택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 운영관리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평가 사항

○ 초기에는 일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유형별로 공모를 받아 수행²⁷⁾

- 유형별로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서 차이가 있어 공모 시 평가지표의 평가 내용에 있어 일부 차별성을 두는 것을 권장함.
-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추진 여건(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실행력), 사업추진 가능성(사업 대상지 적정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구체성, 통합적 발전 가능성), 투자·운영 계획의 적정성(예산·투자의 적정성, 운영·관리의 적정성), 사업의 기대효과(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에서 워케이션형은 지역 자산의 연계 활용성 및 유희시설 활용 연계 등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함.
- 원격근무형은 사업추진 여건 중 실행력 부분에서 기업 및 단체의 장기 이용을 위한 협약 체결 등을 가점 형태로 고려하고, 읍·면 소재지 및 지역 서비스 연계성 정도를 주요한 평가 요소로 추가함.

2.2. 사업 유형별 예상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²⁸⁾

○ 사업 유형별 예상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사업 추진 사례,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호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가정하고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예상함.

□ 워케이션형

○ 워케이션형은 업무 및 거주 복합공간으로서의 워케이션 하우스, 이용자 편의시설인 치유히양시설 및 관련 부대 공사 비용이 필요하고, 부가적으로 설계비, 감리비, 기타경비 등을 고려하여 40억 원 정도로 집계됨.

27) 공모 시 평가 기준 및 배점은 부록 3을 참고.

28) 세부 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산출한 자료임.

- 위케이션 하우스 시설의 면적과 공사비용은 기존 사업의 사례(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와 조달청 공사비 중 기숙사 기준을 준용함.
- 치유·휴양시설도 기존 사례 및 조달청 공사비 등을 준용하여 계산함.

○ 관리 비용의 경우 위케이션 하우스 및 치유·휴양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가정된 규모로 보았을 때, 호당 연 16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5-5〉 위케이션형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및 관리비 산출 내역(안)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백만 원)	비고
소계	A+B+C+D	4,000	개소당
공사비(A)	a+b+c	3,490	
위케이션 하우스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호 × 50㎡/호 = 1,000㎡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평균 주택규모 50㎡ • (공사비) 1,000㎡ × 2,450천 원 = 2,450백만 원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기숙사 기준 	2,450	
치유휴양시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50㎡/(1,000+250)㎡ × 100% = 20% ※ 서울시 복합주거시설 조성 시 부대시설 기준(10~20%) • (공사비) 250㎡ × 2,160천 원 = 540백만 원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복지시설 기준 	540	
부대공사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E, 정보통신 기반시설 조성 등 1식 = 500백만 원 	500	
설계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3,490백만 원 × 4.47% = 156백만 원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설계 대가요율” • (친환경 인증) 156백만 원 × 8% = 12백만 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168	
감리비(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비) 3,490백만 원 × 7.83% = 273백만 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위탁요율 기준 	273	
기타경비(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P/G 개발 및 유지관리 조직 구축 등 1식 = 68백만 원 	68	
총 관리비	e+f	33	
위케이션 하우스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가구 × 50㎡/가구 = 1,000㎡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평균 주택규모 50㎡ • (관리비) 1,000㎡ × 27,984원 = 28백만 원 ※ 전국 아파트 1㎡당 평균관리비(국토부, '20년 1~9월) 기준 	28	
치유휴양시설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50㎡/(1,000+250)㎡ × 100% = 20% ※ 서울시 복합주거시설 조성 시 부대시설 기준(10~20%) • (관리비) 250㎡ × 19,000원 = 5백만 원 ※ 「농어촌지역 문화·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규모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기준 	5	
가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백만 원 ÷ 20가구 = 1.6백만 원 	1.6	1년
평균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백만 원 ÷ 12개월 = 133,000원 	133,000원	1월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원격근무형

- 원격근무형은 주로 기업의 분사, 위성사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해 워케이션형보다 장기 체류 혹은 거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분리하고 교육·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약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업무 시설 및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의 면적과 공사비용도 워케이션 사업비 산출방식과 같이 기존 사업의 사례(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와 조달청 공사비 중 기숙사 기준을 준용함.
- 관리비용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가정한 규모로 보았을 때, 호당 연 3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5-6〉 원격근무형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및 관리비 산출 내역(안)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백만 원)	비고
소계	A+B+C+D	7,000	
공사비(A)	a+b+c+d	6,130	
업무시설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인 × 50㎡/인 = 1,000㎡ ※ 혁신도시 기준 1인당 업무 공간 평균 면적 50㎡/인 • (공사비) 1,000㎡ × 2,100천 원 = 2,100백만 원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일반청사 기준 	2,100	
주거시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호 × 50㎡/호 = 1,000㎡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평균 주택규모 55㎡ • (공사비) 1,000㎡ × 2,450천 원 = 2,450백만 원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기숙사 기준 	2,450	
교육문화시설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00㎡/(1,000+1,000+500)㎡ × 100% = 20% ※ 서울시 복합주거시설 조성 시 부대시설 기준(10~20%) • (공사비) 500㎡ × 2,160천 원 = 1,080백만 원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복지시설 기준 	1,080	
부대 공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E, 정보통신 기반시설 조성 등 1식 = 500백만 원 	500	
설계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6,130백만 원 × 4.32% = 265백만 원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설계 대가요율” • (친환경 인증) 265백만 원 × 8% = 21백만 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286	
감리비(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비) 6,130백만 원 × 7.52% = 461백만 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위탁요율 기준 	461	
기타경비(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P/G 개발 및 유지관리 조직 구축 등 1식 = 123백만 원 	123	

(계속)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백만 원)	비고
총 관리비	a+b+c	57	
업무시설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인 × 50㎡/인 = 1,000㎡ ※ 혁신도시 기준 1인당 업무 공간 평균 면적 50㎡/인 • (관리비) 1,000㎡ × 19,000원 = 19백만 원 ※ 「농어촌지역 문화 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규모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기준 	19	
주거시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가구 × 50㎡/가구 = 1,000㎡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평균 주택규모 50㎡ • (관리비) 1,000㎡ × 27,984원 = 28백만 원 ※ 전국 아파트 1㎡당 평균관리비(국토부, '20년 1~9월) 기준 	28	
교육문화시설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00㎡/(1,000+1,000+500)㎡ × 100% = 20% ※ 서울시 복합주거시설 조성 시 부대시설 기준(10~20%) • (관리비) 500㎡ × 19,000원 = 10백만 원 ※ 「농어촌지역 문화 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규모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기준 	10	
가구당 평균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백만 원 ÷ 20가구 = 3백만 원 • 3백만 원 ÷ 12개월 = 250,000원 	3 250,000원	1年 1月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3.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예상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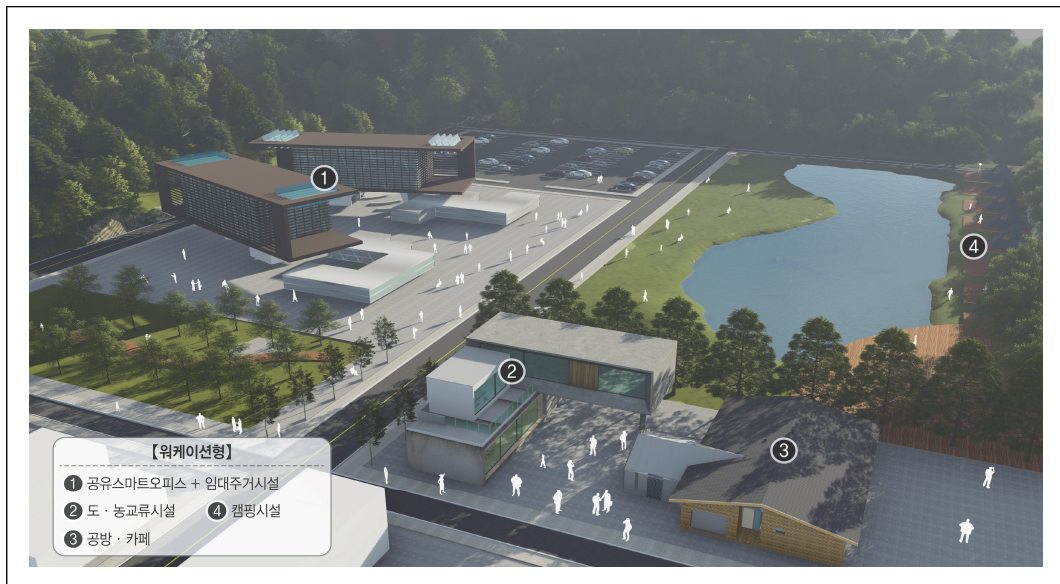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예상 조감도

〈그림 5-10〉 원격근무형(기업 위성사무소 유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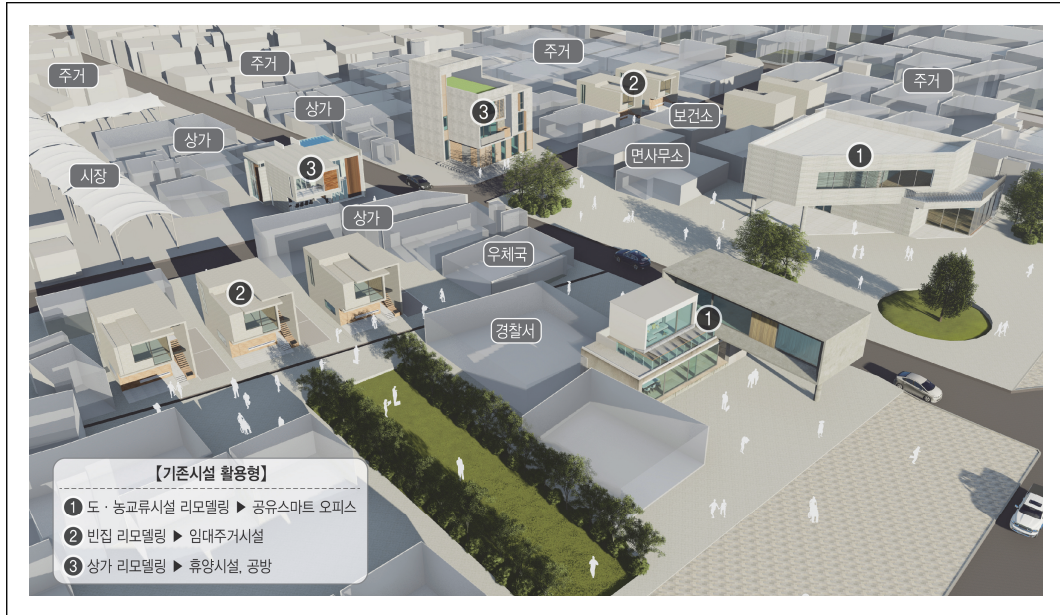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그림 5-11〉 신규 조성 위케이션형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그림 5-12〉 기존시설 활용 위케이션형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4.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기대효과 및 제약요인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의 기대효과

○ 직접적 기대효과

- 농촌은 경제활동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기대함.
- 기업은 도시에 비해 저렴한 기업 유지비용으로 기업 이윤이 증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 따른 근로자 스트레스 저감 및 업무효율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간접적 기대효과

- 도시의 경제활동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하여 도시 과밀화 문제 및 농촌 과소화 문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 간 관계인구 증가 및 교류 활성화로 농촌체험·휴양 및 6차 산업 등 유관 산업과 연계·발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제약 요인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이용 주체인 근로자들이 적극적 이용 의사를 보이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회사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루에 지출 가능한 금액도 많지 않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회사가 이용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주기 바라는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70%

* 1인당 지불 가능한 최대 비용은 평균 5.4만 원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을 반대하는 농촌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쓰레기·소음 등의 이유로 정주환경이 훼손되거나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음.

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운영·활성화 방안

3.1. 인센티브 제공·홍보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 운영 효율화 추진

□ (중앙부처) 농촌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먼저, 국내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및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농촌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해야 함.

- 농촌 스마트워크 상담센터, 농촌지역 위성사무소, 분사 등의 원격근무 지원 사업 마련하여 농촌 스마트워크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함.

- 민간기업 등에 대한 사무기기·사무실 개선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과기정통부 등과 협력하여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 함.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입지를 위해 5G 등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은 필수적 요건임.
- (지자체) 주요 목표 기업·단체 설정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지역-기업 매칭 이벤트, 홍보 활동 강화, 기업 위성 사무실 정착에 대한 지원(비품구입, 여비 교통비, 기타 개설과 관련되는 경비 등)이 필요함.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이용 가능성이 큰 목표 기업·단체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원격근무에 유리한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 등), 정보통신산업 분야 및 농업·농촌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기업 설문 결과, 농업·농촌 관련 기업 중 52%가 시설 이용에 긍정 의향 표출
 - ‘농식품부-지자체-기업·단체’ 간 MOU를 체결하여, 기업·단체 회원사 중 농촌 스마트워크 공간 활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함.
 - *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결정
 - 지자체·기업 간 협의를 거쳐, 이용료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함.
 - * (예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지자체·운영주체와 대형여행사가 제휴하여 전용상품 개발* 및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추진을 검토해야 함.
 - * (예시) 인터파크-강원도관광재단 ‘워케이션’ 특화상품 출시(‘21.3.30~5.31) → 총 8,238박 유치 (속초 17%, 강릉 16%, 고성 13%, 평창 11%, 정선 10% 등)
 - 필요시 신입사원 연수, 신제품 개발, 신사업 창출 등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기획 및 제안도 가능함.
 -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체험·휴양시설 할인권을 지급하여 동반 상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

- 초고속 통신망 정비, 유희시설 활용 조례 마련 및 리모델링을 통한 사무공간 조성을 지원해야 함.

□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및 활용 방안

- 시설물 운영을 담당할 사회적 경제조직*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시켜, 공간의 창의성·효율성 제고 및 준공 후 유지관리 효율 향상을 도모함.

* 지역에 기반을 둔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3.2.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방안

□ 생활권계획 및 농촌용 용도지구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유형별로 입지 차별성을 부여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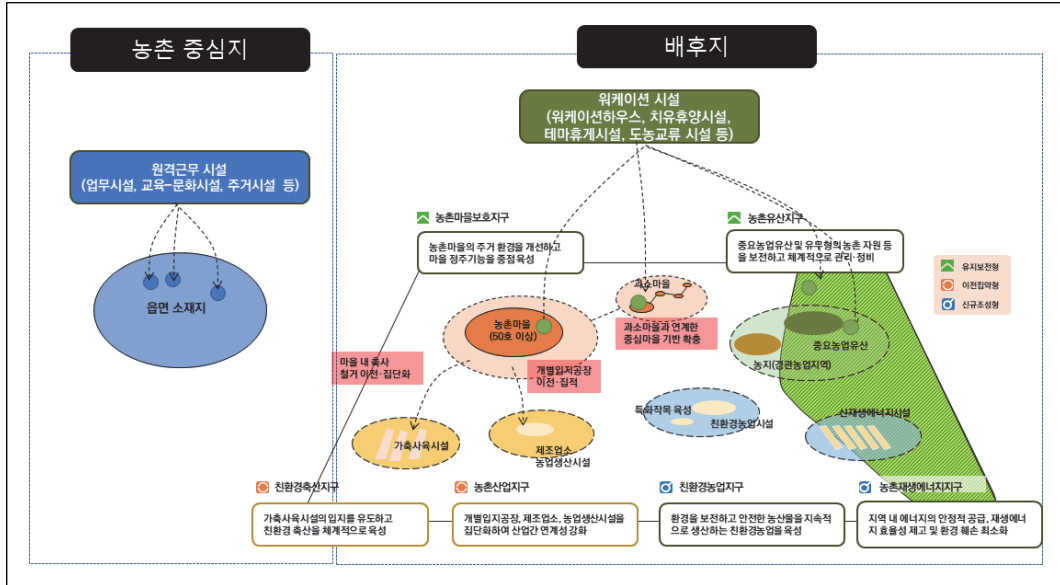
- 원격근무형은 기업의 분사·위성사무소 형태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농촌중심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워케이션형은 개별 근로자의 일, 여가의 병행으로 자연경관이나 한적한 곳의 선호도가 크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워케이션형의 경우 농촌공간계획상 농촌형 용도지구인 농촌마을지구, 농촌유산지구 등에 입지하도록 연계가 필요함.

- 규제로 인식되어 주민의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는 농촌마을지구와 농촌유산지구에 적합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 농촌유산지구는 특성상 자연경관 및 농업유산이 우수한 곳으로 워케이션의 목적 및 활동에 매우 적합한 지역임.

〈그림 5-13〉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사업의 농촌 생활권계획 및 농촌계획지구 반영 예시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3.3. 제도 개선

□ 기업 내 새로운 근무제도 반영 및 근로기준법 변경

○ 근로자의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농촌에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공간, 정보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휴가 일수 증가, 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그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농촌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음.

PART A. 스마트워크 필요성 및 추진 현황

※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식

대표 유형	정의
1) 재택근무	PC,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 수행
2) 모바일 오피스	회사 외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 수행
3) 스마트 워크센터	회사의 특정 공간에 별도로 구축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회사 밖의 전문 사무공간에서 업무 수행
4) 스마트 오피스	유연좌석제, 영상/화상회의, 업무용 메신저 등과 같이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환경

Q01. 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래의 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까?

업 무	비대면 업무 처리 비율 증가여부			비대면 업무 사례
	관련 업무 없음	변화 없음	비대면 처리 증가	
1) 관리(인사, 총무, 경리)	1	2	3	
2) 생산(제조, 구매, 물류)	1	2	3	
3) 영업(국내, 해외, 고객관리)	1	2	3	
4) 연구개발	1	2	3	
5) 기타()	1	2	3	

Q02. 귀사는 아래의 각 유형별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도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 분	시행 여부		도입 계획(미시행 경우만 응답)	
	예	아니오	도입 계획 없음	도입 예정
1) 재택 근무	1	2	1	2
2) 모바일 오피스	1	2	1	2
3) 스마트 워크센터	1	2	1	2
4) 스마트 오피스	1	2	1	2

Q03. 귀사는 위에서 제시한 스마트워크 외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새로운 스마트워크 필요성	1	2	3	4	5

- 3) 직원들의 인사/평가의 어려움 4) 대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직장 문화
- 5) 근무시간, 근태관리 등 관리상의 어려움
- 6) 스마트워크 이용 시 직원 간 협업/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 7) 스마트워크 이용자를 위한 단말기 구입, 통신요금에 대한 비용 부담
- 8)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 9) 해킹/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보안 문제
- 10) 기타()

※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유형	
유형	정의
1. 지역혁신형 (지역자원 활용 도모 지역현안 해결 협업)	(1)지역산업 연계형 지역자원(우수 경관, 농산물, 가공품 등)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체, 신규창업자를 위한 업무 및 지원 공간 제공 ※ 이용적합 업종) 치유형 의료서비스업, 산림복지서비스업, 농산어촌형MICE 산업, 농산물 가공·유통업, 스마트 농업 등
	(2)지역현안 연계형 농촌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업하고자 하는 기업체, 신규창업자 등에게 업무 및 지원 공간을 제공 ※ 이용적합 업종) 사회적 경제 일자리 육성 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 산업
2. 위성사무소형 (분사 및 공유사무실 혼합 형태)	지역 산업이나 지역 문제해결과 관련 없이 분사 기능을 분산시킬 사무실 형태로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농촌지역에서 운영되며, 분사와 공유사무실 성격이 혼합된 원격근무 형태
3. 여행 연계형 (워케이션:Workation)	자연환경, 경관 등 관광·휴양 자원이 우수한 농촌지역에서 여가를 즐기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관광/휴양 농촌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하여 예약제로 운영

Q07. 귀사가 관심이 있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유형이 있습니까?

구분	관심 및 이용 의사	
	없음	있음
1) 지역혁신형(지역산업연계형, 지역현연계형 포함)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1	2
2) 위성사무소형(기업 분사형)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1	2
3) 여행 연계형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1	2

PART C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이용 의향 및 선호 조건

Q08.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신다면 어떤 근무 형태를 예상하십니까? 예상 가능한 근무 형태를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용하신다면 예상 인원(횟수)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형태	이용 가능 여부		이용 대상(✓표시)	(실행하는 경우) 예상 인원/횟수
	예	아니오		
1) 업무를 이전 (상시 근무)	1	2	<input type="checkbox"/> 1) 개인 <input type="checkbox"/> 2) 조직	전체 직원 중 대략 ()%
2) 장기 파견 근무(2주 이상)	1	2	<input type="checkbox"/> 1) 개인 <input type="checkbox"/> 2) 조직	전체 직원 중 대략 ()%
3) 단기 근무(2주 이내)	1	2	<input type="checkbox"/> 1) 개인 <input type="checkbox"/> 2) 조직	전체 직원 중 대략 ()%
4) 정기적 위케이션 (예: 정기적으로 주중 일부를 본사 근무, 나머지를 농촌에 서 일과 여행 병행 등)	1	2	<input type="checkbox"/> 1) 개인 <input type="checkbox"/> 2) 조직	전체 직원 중 대략 ()%
5) 부정기적 위케이션	1	2	<input type="checkbox"/> 1) 개인 <input type="checkbox"/> 2) 조직	전체 직원 중 대략 ()%
6) 워크샵 등 행사 용도로 활용	1	2	<input type="checkbox"/> 1) 개인 <input type="checkbox"/> 2) 조직	1년 중 대략 ()회

Q08-1.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신다면 직원 1인당 지불할 수 있는 연간 최대 비용은 얼마입니까?

(※ 지불의사가 없으시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Q08의 이용가능여부에서 '1.예' 응답 항목만 노출

구분	지불 가능 최대 금액 (1년 기준)
1) 업무를 이전 (상시 근무)	(만 원/명)
2) 장기 파견 근무(2주 이상)	(만 원/명)
3) 단기 근무(2주 이내)	(만 원/명)
4) 정기적 워케이션 (예: 정기적으로 주중 일부를 본사 근무, 나머지를 농촌에서 일과 여행 병행 등)	(만 원/명)
5) 부정기적 워케이션	(만 원/명)
6) 워크샵 등 행사 용도로 활용	(만 원/회)

Q09.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신다면, 차량으로 이동 시 본사와 어느 정도 거리의 농촌 지역이 좋으십니까? 적합한 거리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혁신 형	위성 사무 소형	여행 연계 형
1) 30분 이내 지역			
2) 30분~1시간 이내 지역			
3) 1시간~2시간 이내 지역			
4) 2시간 이상 지역도 상관 없음			

Q10.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지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한 특성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혁신 형	위성 사무 소형	여행 연계 형
1)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농촌 읍·면 소재지에 입지			
2) 쾌적한 자연 환경·경관을 누릴 수 있는 한적한 장소			
3) 가까운 장소에서 여가·체험·관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Q11.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업무공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적합한 특성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통신망 완비, ICT 기기는 구비 또는 대여 가능)**

	지역 혁신 형	위성 사무 소형	여행 연계 형
1) 개인·조직이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무공간			
2) 공유오피스			
3) 숙박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공간			
4) 기타()			

지역 혁신 형	위성 사무 소형	여행 연계 형
Q12.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숙박·주거 공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적합한 특성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혁신 형	위성 사무 소형	여행 연계 형
Q13.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숙박·주거 공간 외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공간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혁신 형	위성 사무 소형	여행 연계 형
Q14. 귀사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이 입지한 지역이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기를 바라십니까?		

지역 혁신 형	위성 사무 소형	여행 연계 형
Q15. 귀사의 근로자가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을 이용할 경우 가족동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D

--	--	--	--

www.krei.re.kr 우) 5821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근로자 대상] 스마트워크 공간으로서의 농촌 업무공간 수요조사

2021041201-0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마을 조성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전통적 근무 형태를 벗어나 비대면 업무형태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우수한 자연 환경과 경관을 갖춘 농촌이 기업의 스타트업 창업, 조직분사 및 직원 재충전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 산업 및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 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 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 7.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리서치앤리서치(R&R)

사항 연구담당자: 김용욱 정책전문연구원 ☎ 061-820-2313

실사담당자: 정재원 차장 (02-3484-3045)

SQ01.	귀하는 현재 기업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설문 종료
SQ0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 기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SQ03.	귀하께서 다니시는 사업장 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업명 + 사업장명) 예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사

PART A. 스마트워크 필요성 및 추진 현황

※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식

대표 유형	정의
1) 재택근무	PC,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 수행
2) 모바일 오피스	회사 외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 수행
3) 스마트 워크센터	회사의 특정 공간에 별도로 구축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회사 밖의 전문 사무공간에서 업무 수행
4) 스마트 오피스	유연좌석제, 영상/화상회의, 업무용 메신저 등과 같이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환경

Q01. 귀하가 속한 회사에서는 아래의 각 유형별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구 분	시행 여부	
	아니오	예
1) 재택 근무	1	2
2) 모바일 오피스	1	2
3) 스마트 워크센터	1	2
4) 스마트 오피스	1	2

Q01-1.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면, 귀하는 아래의 스마트워크 유형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 분	경험 유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1) 재택 근무	1	2
2) 모바일 오피스	1	2
3) 스마트 워크센터	1	2
4) 스마트 오피스	1	2

Q01-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보다 확대 시행되었으면 하는 스마트워크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재택 근무 | 2) 모바일 오피스 |
| 3) 스마트 워크센터 | 4) 스마트 오피스 |
| 5) 기타() | |

Q02. 귀하는 위에서 제시한 스마트워크 외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새로운 스마트워크 필요성	1	2	3	4	5

Q02-1. (Q02번의 3~5점 응답한 한 경우) 귀하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워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필요로 하는 스마트워크의 특성을 문장으로 설명하거나 키워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PART B. 농촌 스마트워크 이용 의향 및 선호 유형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이란?

- 비대면 업무형태 확대 추세에 맞춰 농촌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 초고속 유무선망 보유 복합업무공간, 주거공간 및 수요자 맞춤형 테마 시설(돌봄, 휴양, 문화)을 농촌 지역에 구축하는 사업
- 기업은 스타트업 창업, 조직 분사, 직원 재충전 공간으로 활용, 농촌은 경제활동 인구 유입, 유관산업 발전 등의 효과 기대

Q0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이 조성될 경우,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0~10점으로 평가, 의향 정도에 체크(√))

<----- 매우 부정적 ----- 보통 ----- 매우 긍정적 ----->										
0	1	2	3	4	5	6	7	8	9	10

Q03-1. (Q03번의 0~5점 응답한 한 경우) 귀하께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1)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한 적응 부담
- 2)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두려움
- 3) 인사/평가 불이익
- 4) 대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직장 문화
- 5) 근무시간, 근태관리 등 관리상의 어려움
- 6) 스마트워크 이용 시 직원 간 협업/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 7) 기타()

Q04. 귀하가 관심이 있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유형은 무엇입니까?

(※ 관심/이용 의사가 없으셔도 보기 중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유형	
유형	정의
1) 워케이션형	<p>중·단기간에 걸쳐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농촌 공간</p> <p>- 자연 속에서 심신의 회복과 농촌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p> <p>- 워케이션하우스, 휴양, 도농교류시설 등이 집적화된 공간 조성</p>
2) 원격근무형	<p>도시 근로자(개인 또는 가족) 및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으로의 이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 공간</p> <p>- 개인의 원격근무 및 기업의 이전·분사·위성사무소 설치 등 유치</p> <p>- 탈대도시, 농촌 이주 등 국민수요에 대응한 업무·정주 공간 마련</p> <p>- 도시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창작 활동을 위한 오피스 공간 제공</p>

1) 워케이션형

2) 원격근무형

3) 둘 다

Q05.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신다면 어떤 근무 형태를 희망하십니까?

구분	이용 희망 여부	
	없음	있음
1) 업무를 이전 (상시 근무)	1	2
2) 장기 파견 근무(2주 이상)	1	2
3) 단기 근무(2주 이내)	1	2
4) 정기적 워케이션 (예: 정기적으로 주중 일부를 분사 근무, 나머지를 농촌에서 일과 여행 병행 등)	1	2
5) 부정기적 워케이션	1	2
6) 워크샵 등 행사 용도로 활용	1	2

PART C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이용에 대한 선호 조건

(※ “위케이션형”/“원격근무형”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Q06.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신다면, 차량으로 이동 시 근무지와 어느 정도 거리의 농촌 지역이 좋으십니까? 적합한 거리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케이션형	원격근무형
1) 30분 이내 지역		
2) 30분~1시간 이내 지역		
3) 1시간~2시간 이내 지역		
4) 2시간 이상 지역도 상관 없음		

Q07.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신다면, 차량으로 이동 시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의 농촌 지역이 좋으십니까? 적합한 거리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케이션형	원격근무형
1) 30분 이내 지역		
2) 30분~1시간 이내 지역		
3) 1시간~2시간 이내 지역		
4) 2시간 이상 지역도 상관 없음		

Q08.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지적 특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한 특성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케이션형	원격근무형
1)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농촌 읍·면 소재지에 입지		
2) 쾌적한 자연 환경·경관을 누릴 수 있는 한적한 장소		
3) 가까운 장소에서 여가·체험·관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Q11.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이용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광·여가·체험·휴양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1) 휴식/휴양 | 2) 자연 명승/풍경 감상 |
| 3) 지역 음식/맛집 체험 | 4) 역사 유적지 방문 |
| 5) 지역 테마파크 방문 | 6) 레저/스포츠 활동 |
| 7) 농업 체험 | 8) 농촌생활문화체험 |
| 9) 생태체험 | 10) 지역축제 참가 |
| 11) 농특산물 구입 | 12) 기타() |

Q12.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이용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 및 업무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오.

- 1) 멘토링 프로그램
- 2)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편의시설 정보
- 3) 인적 네트워킹 프로그램
- 4) 정착을 위한 지역 부동산 정보
- 5) 메이커스페이스 장비(3D프린터, IoT 장비 등) 교육
- 6) 기타()

Q13.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기 및 장비는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 업무 시 필요한 기기 및 장비를 설명하거나 키워드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PC, ②복합기(프린터), ③팩스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ex. 웹캠(WebCam), 노트북, 태블릿, 3D 프린터 등

-

-

Q14.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업무공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적합한 특성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통신망 완비)

특성	위케이션 형	원격근무형
1) 독립적 사무공간		
2) 공유오피스		
3) 숙박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공간		
4) ICT기기 구비 및 대여가 가능한 공간		
5) 자유로운 분위기의 야외 업무공간		
6) 기타()		

Q15.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숙박·주거 공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적합한 특성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케이션형	원격근무형
1) 농촌민박·펜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기존 농촌 숙박 시설		
2) 자연휴양림 내 숙박 시설		
3) 하우스 키퍼링이 제공되는 호텔형 숙박 시설		
4) 별도의 서비스 제공 없는 기숙사·오피스텔형·연수원형 숙박 시설		
5)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 주거 공간		
6) 기타()		

Q16.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숙박·주거 공간 외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공간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케이션형	원격근무형
1) 소규모 생산설비 운용을 위한 공간		
2) R&D를 위한 실험실 등의 공간		
3) 스마트 팜 등 농업생산 공간		
4) 교육·연수 등을 위한 회의실		
5) 기타()		

Q17.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주변 지역이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케이션형	원격근무형
1)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2) 자녀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교육 여건		
3) 의료 시설 이용 편의성		
4)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5) 기타()		

Q18. 귀하께서 근로자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할 경우 가족을 동반하시기를 희망하십니까?	위케이션형	원격근무형
1) 배우자 동반		
2) 자녀 동반		
3) 가족 동반(배우자, 자녀포함)		
4) 혼자		

Q19.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는 데 비용 발생 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1) 회사 전액 지원 시에도 이용할 의향 없음 | ▶ PART D로 이동 |
| 2)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 의향 없음 | ▶ PART D로 이동 |
| 3) 회사에서 일부 지원 시, 이용할 의향 있음 | ▶ Q19-1.로 이동 |
| 4)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의향 있음 | ▶ Q19-1.로 이동 |

Q19-1.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의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 시 이용하시겠습니까?

- | | |
|------------------|-----------------------------|
| 1) 비용의 10~20% 정도 | 2) 비용의 30~40% 정도 |
| 3) 비용의 50~60% 정도 | 4) 비용의 70~80% 정도 |
| 5) 비용의 80% 이상 | 6) 기타() |

Q19-2. 귀하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하신다면, 하루 기준 1인당 지불가능한 최대 비용은 얼마입니까? (숙박 및 기타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 | |
|-------------------|------------------|
| 1) 3만 원 미만 | 2) 3만 원~5만 원 미만 |
| 3) 5만 원~7만 원 미만 | 4) 7만 원~10만 원 미만 |
| 5) 10만 원~15만 원 미만 | 6) 15만 원 이상 |

Q19-3. (Q19-2번의 1), 6) 응답한 한 경우)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 공간을 이용 시 하루 기준 1인당 지불가능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이십니까?

()만 원

DQ7. 귀하의 근무지와 거주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DQ7-1.	귀하의 근무지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시군구	()시/군/구
DQ7-2.	귀하의 거주지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시군구	()시/군/구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3

마을 이장 대상 스마트워크 마을에 대한 수요 조사

Q24. 최근 5년 동안 귀하의 행정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두 가지를 선택 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2) 귀농어·귀촌인 증가 |
| 3) 외부인 왕래 및 방문 증가 | 4)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 |
| 5)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 6) 태양광시설, 공장 등 시설 증가 |
| 7) 농어업 여건 변화(주작목 및 소득기반 변화) | 8) 기타 () |

Q25. 귀하의 마을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 | | |
|------------------------------|-------------------------------|
| 1) 마을에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었다 | 2)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
| 3)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 4) 온라인, 전화주문 등 농산물 직거래가 증가하였다 |
| 5)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 |
| 6)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 |
| 7)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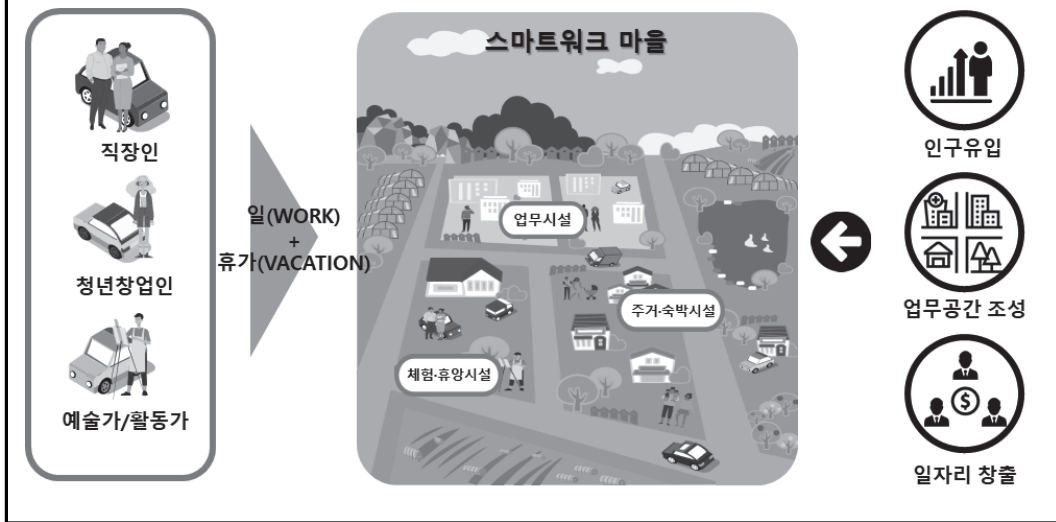
Q26. 귀하의 마을을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난다면,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대체로 도움이 된다 | 3) 보통이다 |
| 4) 거의 도움이 안된다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 |

Q27.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스마트워크 마을'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마을에 스마트워크 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거라 보십니까?

- | | | |
|-----------|-----------|-------------|
| 1) 매우 반대 | 2) 대체로 반대 | ☞ 이하 Q29번으로 |
| 3) 보통 | | ☞ 이하 Q30번으로 |
| 4) 대체로 찬성 | 5) 매우 찬성 | ☞ 이하 Q28번으로 |

※ 스마트워크 마을은 농촌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해, **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공간 및 관련 시설(돌봄, 휴양, 문화시설)을 조성**하려는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스마트워크 마을로 조성되면, **마을 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귀하의 마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Q28. (찬성하시는 경우) 만일 스마트워크 마을이 귀하의 마을에 들어온다면 마을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1)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2) 인구 증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3) 빈집 정비 등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 4) 의료, 문화시설 등의 기초서비스시설 확충
- 5) 식당, 편의점, 카페 등 생활 시설 확충
- 6) 기타()

Q29. (반대하시는 경우) 마을 주민들이 스마트워크 마을을 반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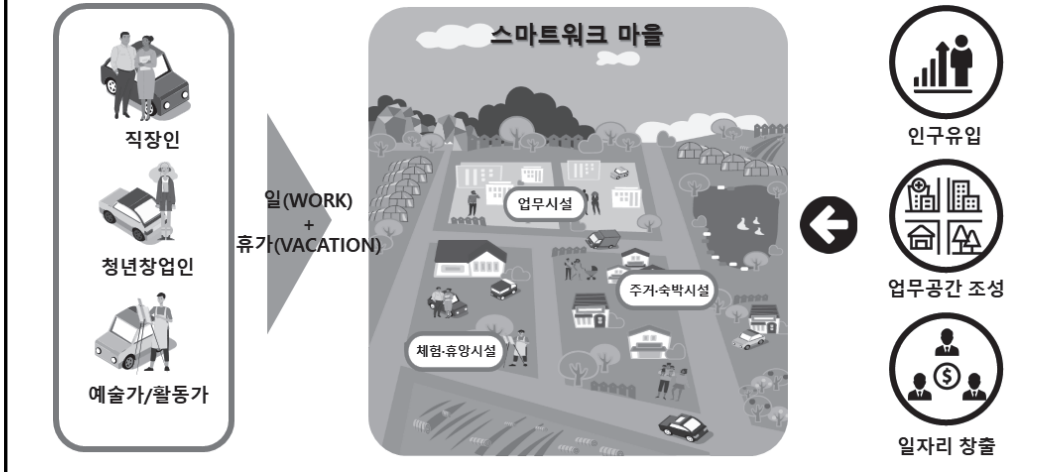
- 1) 농업 및 기존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어서
- 2) 쓰레기, 소음 등 정주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 3)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 4) 외부인과 기존주민의 융합이 어려울 거 같아서
- 5)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거 같아서
- 6) 기타 ()

마을 주민 대상 스마트워크 마을에 대한 수요 조사

Q16.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스마트워크 마을'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마을에 스마트워크 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반대 | 2) 대체로 반대 | ☞ 이하 Q16-2번으로 |
| 3) 보통 | | ☞ 이하 Q17번으로 |
| 4) 대체로 찬성 | 5) 매우 찬성 | ☞ 이하 Q16-1번으로 |

※ 스마트워크 마을은 농촌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해, **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공간 및 관련 시설(돌봄, 휴양, 문화시설)을 조성**하려는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스마트워크 마을로 조성되면, **마을 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귀하의 마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Q16-1. (찬성하는 경우) 스마트워크 마을이 귀하의 마을에 들어온다면 마을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
| 1)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2) 인구 증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 3) 빈집 정비 등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 4) 의료, 문화시설 등의 기초서비스시설 확충 |
| 5) 식당, 편의점, 카페 등 생활 시설 확충 | 6) 기타() |

Q16-2. (반대하는 경우) 귀하께서 스마트워크 마을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농업 및 기존 경제활동에 방해 | 2) 쓰레기, 소음발생 등 정주환경 훼손 우려 |
| 3)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 문제 우려 | 4) 외부인과 기존주민의 융합이 어려움 |
| 5)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 | 6) 기타 () |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4

① 위케이션형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계	-	-	100
사업추진 여건 (10)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사업추진 협의체 등 구성 여부 • 외부 전문가 MP(총괄기획가) 위촉 여부 	5 (정량)
	사업계획의 실행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방이양 사업 포함) 실행행률 	5 (정량)
사업추진 가능성 (30)	사업대상지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부지 확보 및 수요 분석 타당성 • 지역 내 유희시설 리모델링 및 유관시설 연계 여부 • 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 자원과 연계·활용 가능성 • 초고속 인터넷(5G) 환경 구축 가능 여부 	20 (정량)
	관련계획과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이 해당 시·군의 정책방향 및 관련 계획(시행중 또는 시행예정) 등과 연계성 및 부합 여부 	10 (정량)
사업계획 타당성 (30)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비전 및 목표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 유·무형 자원과 사업계획의 부합성 	20 (정성)
	통합적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존 시설·사업 등과 통합적 지역 발전 가능성 	10 (정성)
투자·운영 계획의 적정성 (20)	예산·투자 계획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정성 • 예산집행 계획(설계/시공 발주)의 타당성 	10 (정성)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주체의 지정 및 능력, 비용예측 및 유지관리 재원조달계획 등 수립 여부 • 운영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 등 지역의 주민 및 법인 참여 여부 • 도시민 유치 등 홍보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사업 효과 (10)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 효과 • 사업, 운영 등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계획 	10 (정량)

2 원격근무형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계	-	-	100
사업추진 여건 (10)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사업추진 협의체 등 구성 여부 • 외부 전문가 MP(총괄기획가) 위촉 여부 	5 (정량)
	사업계획의 실행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방이양 사업 포함) 실적행률 • 기업, 단체의 장기 이용 등을 위한 MOU • 체결 선행 여부 	5 (정량)
사업추진 가능성 (30)	사업대상지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부지 확보 및 수요 분석 타당성 • 음·면소재지 등과 접근성 및 지역 서비스 연계성 • 초고속 인터넷(5G) 환경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여부 	20 (정량)
	관련계획과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이 해당 시·군의 정책방향 및 관련 계획(신규 마을 조성 사업 등)과 연계 및 부합 여부 	10 (정량)
사업계획 타당성 (30)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비전 및 목표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 유·무형 자원과 사업계획의 부합성 	20 (정성)
	통합적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존 시설·사업 등과 통합적 지역 발전 가능성 	10 (정성)
투자·운영 계획의 적정성 (20)	예산·투자 계획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정성 • 예산집행 계획(설계/시공 발주)의 타당성 	10 (정성)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주체의 지정 및 능력, 비용예측 및 유지관리 재원조달계획 등 수립 여부 • 운영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 등 지역의 주민 및 법인 참여 여부 • 도시민 유치 등 홍보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사업 효과 (10)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인구 및 정주인구 증가 효과 • 사업, 창업, 운영 등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계획 	10 (정량)

1. 논문 및 발간자료

〈국내〉

- 강민정·박선미. 2020. “스마트워크 정책동향: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디지털서울이슈리포트』 2020-02호. 서울디지털재단.
- 고용노동부. 2011.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
- 김동영. 2021. “리모트워크 (Remote Work) 시대 도래와 전복유치전략.” 『이슈브리핑』 제244호. 전복연구원.
- 김선웅·장남중·오은주·이가인·최경인. 2019. 『서울시 공유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 기업 이용실태 진단』. 서울연구원.
- 김현주·최경은·김형중. 2020. “인구구조 변화와 국내관광 정책 방향.” 『한국관광정책』 (82): 88-94.
- 농촌진흥청.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 서기만·장재현. 2011. “스마트 워크, 외부 효과에 주목해야.” 『LG Business Insight』 제1143호. pp. 17-26.
- 박선미·강민옥·강민정. 2020.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무방식 유연화 방안 연구』. 서울디지털재단.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정도채·서형주.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정도채·한이철. 2020.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KREI 농정포커스』 제194호. pp. 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심재현·한이철·민경찬. 2021.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200호. pp. 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병준·박혜진. 2020.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95호. pp. 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인터파크 ‘강원도로 출근하자’ 거리정보 이미지
- 전병태. 2013.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수희·허동숙. 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292-311.
- 차미숙. 2020.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정책 추진동향.” 『도시정보』 465호. pp. 41-45.
- 통계청. 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1. 『2020년 출생통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촌의 희망을 말하다.” 『2019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코로나 19 영향 관련 도시민 설문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3. 15.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Vol.10 농업농촌 식품동향』.
-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 정보<<https://www.reb.or.kr/r-one>>.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검색일: 2021. 8. 10.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 자살현황.” <<https://spckorea-stat.or.kr/korea01.do>>. 검색일: 2021. 5. 4.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행정안전부. 2010.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략』.
- HyuIL 페이스북. <<https://images.app.goo.gl/Qs7UZuoB7h6ze3su9>>. 검색일: 2021. 5. 4.

〈국외〉

- Bathelt, H., A. Malmberg, and P. Maskell. 2004. “Clusters and knowledge: local buzz, global pipelines and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 31-56.
- Capdevila, I. 2015. “Co-working spaces and the localised dynamics of innovation in Barcelona.”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19(03), 1540004.
- Genstar. 2018. “Another Opportunity Has Arisen: Coworking Space.”
- Hall, P. G. 1998. “Cities in civilization.”
- Lange, B. 2011. “Re-scaling governance in Berlin’s creative economy.” *Culture Unbound* 3(2): 187-208.
- Messenger, J. C. 2017. “Working anytime, anywhere: The evolution of telework and its effects on the world of work.” *IUSLabor. Revista d'anàlisi de Dret del Treball*, (3).
- Moriset, B. 2013. “Building new places of the creative economy.” *The rise of coworking spaces*.
- Morisson, A. 2018. “A typology of places in the knowledge economy: Towards the fourth place.”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w metropolitan perspectives* (pp. 444-451). Springer, Cham.
-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검색일: 2021. 5. 13.
- Pyke, F. and Sengenberger, W. (Eds.). 1992. “Industrial districts and local economic regener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Spinuzzi, C. 2012. “Working alone together: Coworking as emergent collaborative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and technical communication 26(4): 399-441.
 矢野經濟研究所. 2021. <일본시장조사보고서> 주목되는 위케이션 시장의 실태와 전망~지방창생을
 촉진하는 뉴노멀한 일하는 방식(일본어판).
 <https://www.yano.co.jp/market_reports/C62119600>. 검색일: 2021. 6. 5.
 総務省. 2020. テレワーク関係府省連絡会議 (第9回) 配布資料.
 유럽의회조사처. 2021. Smart villages: Concept, issues and prospects for EU rural area.
 European Parliament 홈페이지.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검색일: 2021. 5. 31.
 TOKUSHIMA Satellite office 홈페이지(<<https://www.tokushima-workingstyles.com/project/>>). 검색일: 2021. 5. 24.

2. 보도자료

강원도관광재단 보도자료. 2021. 3. 31. “강원도관광재단X인터파크투어, 강원 위케이션 특화상품
 선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12. 21. “[HIRA이슈]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코로
 나 블루.” <https://blog.naver.com/ok_hira/222180810874>. 검색일: 2021. 5. 13.
 고용노동부. 2020. 9. 24. “재택근무 업무효율과 직무만족 모두 높게 나타나.”
 『국민일보』. 2021. 3. 25. “경북도, 전국 최초로 “기업을 농촌으로 유치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5&aid=0001423854>>. 검색일: 2021. 6. 21.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 11. 4. ““여행지에서 일하고 싶어요”... 에어비앤비, 내년 여행 트렌드
 전망.”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91>>. 검색일: 2021. 5. 13.
 『매일경제』. 2016. 5. 29. “롯데그룹, 지정석·차가 임원방 없애고 스마트 오피스 단장.”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6/05/385290/>>. 검색일: 2021. 5. 13.
 『부산일보』. 2021. 5. 4. “부산 북항에 ‘문화 셋별’ 떴다... ‘북두칠성 도서관’ 5일 개관.”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0415314929086>>. 검색일: 2021. 5. 18.
 『서울경제』. 2021. 1. 18. “스트리밍하우스, 2020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우수기업’ 선정.”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WIOV3>>. 검색일: 2021. 5. 18.
 『서울경제』. 2021. 7. 1. “코로나시대 농촌의 재발견... 경북 ‘힐링워크’ 사업 눈에 띄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QTNLJC7>>. 검색일: 2021. 8. 17.
 『웹플러스뉴스』. 2021. 3. 25. “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에서 힐링하며 일한다. 경북도-라운피플
 (주)-의성군-만경촌 농촌체험휴양마을간 업무협약(MOU).” <<http://webplusnews.kr/news/view.php?no=11681>>. 검색일: 2021. 8. 17.
 『중앙일보』. 2018. 11. 23. “계곡서도 wi-fi 터진다...IT기업 16곳 몰린 日산골마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51341#home>>. 검색일: 2021. 8. 17.

- 『한겨레』. 2020. 6. 7. “‘출퇴근 시간 20분 이내로’…SKT의 실험은 성공할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948205.html#csidxc8d94010b4bdca3bd11acdb7744423b>>. 검색일: 2021. 8. 17.
- 『한겨레』. 2020. 10. 10. “대도시 떠나는 사람들, ‘직주근접’ 대신 ‘직주일치’ 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210.html#csidx7e80121caf84a2dad58ef826cff834>. 검색일: 2021. 8. 1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자료. 2020. 10. 14. “‘국민 40.7% "코로나 19로 우울·불안 경험했다”.”
- 『한의신문』. 2020. 6. 25. “코로나19 대응인력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027>. 검색일: 2021. 9. 7
- 『헬로디디』. 2021. 1. 14. “코로나로 '소도시'가는 대기업들…인구 700명 마을 '본사 이전'.” <<http://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84>>. 검색일: 2021. 9. 7.
- 『ChosunBiz』. 2020. 9. 2. ““온천에서 근무, 캠핑장에서 회의”...코로나에 활성화되는 디코 '위케이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2350.html>. 검색일: 2021. 9. 7.
- Freepik. <https://kr.freepik.com/free-photo/group-of-pilates-instructors-exercising-on-reformers_9320424.htm#page=1&query=pilates&position=4&from_view=keyword>. 검색일: 2021. 9. 19.
- Shutterstock. <https://www.shutterstock.com/ko/explore/korea-stock-images-0814?kw=shutterstock&c3apidt=p67361398787&gclid=EAIaIQobChMI5-vE7PWj9AIVMZBoCR3PkgiBEAAYASAAEgI7LvD_BwE&gclsrc=aw.ds>. 검색일: 2021. 9. 19.
- YTN. 2021. 1. 23. “코로나19의 ‘나비효과’...실리콘밸리 떠나는 IT기업들.” <https://www.ytn.co.kr/_ln/0104_202101230351397146>. 검색일: 2021. 5. 4.